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이지연



연구보고 21-R26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저 자 이지연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동향분석’이라는 다소 딱딱한 이름 안에 담아 놓은 책이다.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해 우선 2010년부터 12년 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며 우리 원이 청소년 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왔는지 돌아보고자 했다.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우리 원이 12년 간 수행한 연구과제의 목록들 속에서 발견한 청소년정책 연구의 최신 트렌드와 앞으로 얼마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연구들을 뽑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트렌드 조사 성격의 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가장 먼저는 우리 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 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발달과 발달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행태의 변화였고, 앞으로 뉴미디어 관련 정책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지난 정부 이후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는 청년정책 분야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원에서 꾸준히 집중해 나갈 연구 분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한국사회 뿐 아니

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가 처음 겪어보며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책과 연구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할 대상들일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 연구에 관한 세 가지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소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동 집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분들의 기여가 컸다. 꼼꼼하게 분석해주시고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청소년정책 연구에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초보 연구자인지라 시대의 흐름과 연구 동향을 연결 짓는 일이 쉽지 않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제법 해왔다고 여겨왔는데, 돌이켜보니 큰 흐름에 대한 관심보다는 흥미 있는 주제에만 골몰해왔던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막막한 기분이 들 때에 도움을 청하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작은 그림들을 채워 넣어주시며 청소년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신 연구원의 여러 박사님들이 계신다. 외부 연구자분들도 방대한 양의 연구목록을 살펴봐주시고 분석틀을 만드는 데에 지혜를 빌려주셨다. 책으로 익힐 수 없는 귀한 지식을 나눠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지연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소년정책 연구의 최신동향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에 수행한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성과 및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또한,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2010~2021년) 분석
 - 연도별로 개별 연구과제를 주제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자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제 범주 수정과 연구과제 재분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최종 주제 범주를 확정하고 연구과제 주제 분류를 완료함.
 - 주제 분류 내용을 기초로 본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동향과 성과를 분석함. 이를 위해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국회의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연구기관 평가 결과 내부 자료 등을 참고함.
 -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정책연구의 최신 동향 세 가지를 선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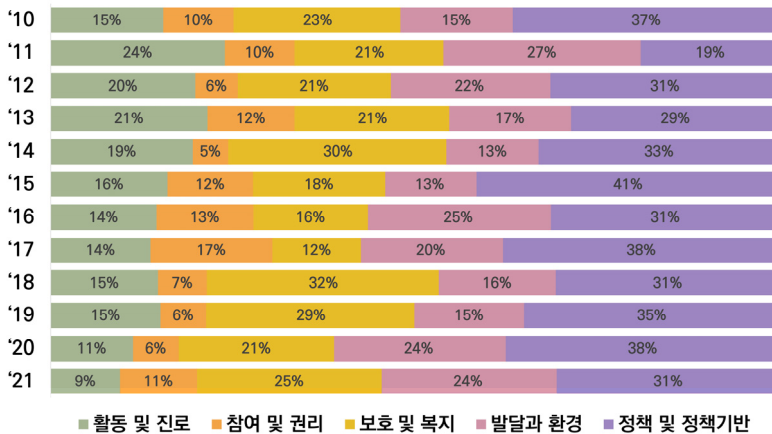
본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함.

- 청소년정책 최신동향연구 1: 청소년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 본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과 생활방식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함.
- 청소년정책 최신동향연구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021년 8월 26일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주요 신규 정책 10가지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석함.
- 청소년정책 최신동향연구 3: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 15~34세 청소년·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상 지위와 근로직종 및 근로환경의 변화, 변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분석함.

3. 주요결과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총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로 이루어진 분류틀이 도출되었음. 5개 대주제는 활동 및 진로, 참여 및 권리, 보호 및 복지, 발달과 환경, 정책 및 정책기반이며, 도출된 주제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영역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남. 연도에 따른 대주제별 과제 수행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소주제별로 눈에 띄는 특징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인한 온라인 세계의 확장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활동, 국제교류, 참여 등 오프라인 기관과 대면활동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들이 필요함.
- 청년 대상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쏟아지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는 청년 연구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필요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생애 각 발달단계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생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과정을 연구하고 지원하며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데에 기여해야 함.
- 사회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 뿐 아니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각 요소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연구 뿐 아니라

관련 기초 연구도 꾸준히 수행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반을 닦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및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연구들이 단편에 그치지보다 정책제안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해당 정책의 실행 및 평가에 관한 후속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2)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 중학교 1학년 패널 발달 추이 분석 및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분석 결과, 성장·발달에 따른 차이보다는 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더 두드러졌음. 예를 들어, 2010년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는 20세가 될 때까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코호트 분석에서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코호트별 차이는 시간 사용에서 두드러짐.
 -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학원/과외 시간이 특히 주말 시간을 중심으로 더 줄어들었으며, 개인적인 공부시간 및 독서시간 역시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더 감소한 반면, 친구와 노는 시간은 주중 시간을 중심으로 최근 코호트에서 더 증가하였음.
 -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TV/비디오 시청 시간 및 컴퓨터 이용 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활용 및 미디어 이용이 스마트폰 및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신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인식

- 2021년 8월 26일에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청년정책 중 10개를 선별하여 해당 정책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책에 대해 사전인지여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이용 의향 정도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금 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나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청년들은 신규 청년정책에 대해 대체로 사전인지도가 낮았으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음. 그러나 청년의제 공론화장이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70% 이하로 나타나 해당 정책들에 대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청년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정책홍보의 표적화가 필요해 보임.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사전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남. 모든 정책에 대하여 전체 응답과 다소 상이한 응답 패턴을 보인 이들 집단의 특성과 정책에 대한 수요 및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이전인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만 15~34세의 청소년·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결과 중 코로나-19가 청소년·청년 근로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의 과반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다른 직종에 비해 더 큰 서빙·주방, 매장관리, 서비스, 상담·영업, 교육 등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조사대상자는 2020년 1월에 모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중 30.3%가 조사시점에 일하지 않고 있었고 18.8%는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고 있었음. 2020년 1월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시도한 응답자 중 88.9%는 이전보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느꼈음.
-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된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한 응답자는 13명, 사업장이 폐업한 이유가 코로나-19 유행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명이었음. 전체 응답자의 4.8%에 해당하는 이들이 2020년 1월에 종사하던 직종 중 78.9%는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으로 해당 직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조사시점인 2021년 11월에도 이전과 동일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 중 2020년 1월에 비해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53명임. 이들의 67.9%(36명)는 임금 감소의 이유가 고용주 사정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6%(29명)는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청년 집단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성과 부족한 경력 및 연소자라는 생애주기 상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연구보고 21-R2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3. 연구추진체계	6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1
2.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15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연도별 주제 분류 ...	21
4. 요약 및 시사점	46

III.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1. 2010년 중학교 1학년 발달추이분석	51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분석	58
3. 요약 및 시사점	76

Ⅳ. 신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인식

1. 청년특별대책	81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개요	86
3.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결과	88
4. 요약 및 시사점	114

Ⅴ.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1.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개요	121
2. 코로나-19 전후 근로 현황의 변화	124
3. 시사점: 코로나-19가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에 미친 영향	150

참고문헌	153
-------------------	------------

부 록	159
------------------	------------

1.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지	161
2.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온라인 설문지	184

국문초록	201
-------------------	------------

Abstract	203
-----------------------	------------

표 목차

표 II-1. 제4~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12
표 II-2. 2010~2021년 청소년 관련 6개 법률 주요 입법 내용	15
표 II-3. 주제별 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 과제 수(2010~2021년)	22
표 III-1. 중1 발달추이분석 활용 변수	53
표 III-2. 2010년~2016년 중1패널 개인 차원 변수의 추이	54
표 III-3. 2010년~2015년 중1패널 학교 차원 변수의 추이	56
표 III-4. 2010년~2016년 중1패널 지역사회 차원 변수의 추이	57
표 III-5. 중1 코호트분석 활용 변수 및 원자료 측정방식	59
표 III-6. 중1 코호트분석 변수 전처리	60
표 III-7. 중학교 1학년의 심리적 특성 코호트분석	62
표 III-8.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수면시간 코호트분석	63
표 III-9. 중학교 1학년의 평균 학원/과외시간 코호트분석	64
표 III-10. 중학교 1학년의 평균 공부시간 코호트분석	65
표 III-11. 중학교 1학년의 평균 독서시간 코호트분석	66
표 III-12.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친구와 노는 시간 코호트분석	67
표 III-13. 중학교 1학년의 평균 TV/비디오 시청 시간 코호트분석	68
표 III-14.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코호트분석	69
표 III-15.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	70
표 III-16.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과의 통화	71
표 III-17.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과의 문자	72
표 III-18.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친구와의 통화	72
표 III-19.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친구와의 문자	73
표 III-20.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게임	74
표 III-21.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사진 촬영	74
표 III-22.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동영상 시청	75
표 III-23.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음악 감상	75
표 IV-1. 분야별 주요 청년정책 10개 핵심내용	84

표 IV-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7
표 IV-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93
표 IV-4.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95
표 IV-5.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97
표 IV-6.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99
표 IV-7. '청년 희망적금'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01
표 IV-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03
표 IV-9.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05
표 IV-10. '청년의제 공론화장'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07
표 IV-11. '공공자가주택'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10
표 IV-12.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112
표 IV-13. 청년정책 선호도 순위(3개 복수 응답)	113
표 IV-14. 수요·인식 측면별 긍정 응답 순위 및 비율	114
표 V-1. 성별, 연령별, 지역별 조사대상자 수	122
표 V-2.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재학·휴학 여부	123
표 V-3. 2021년 11월 종사상 지위	125
표 V-4. 조사대상자 2020년 1월 근무 직종 대분류	127
표 V-5. 2021년 11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직종 대분류	129
표 V-6. 2020년 1월 이후 이직 여부	131
표 V-7. 이직자·비이직자 현재 직종 대분류	132
표 V-8. 비이직자 임금 변화	133
표 V-9. 비이직자 직종별 임금 변화	135
표 V-10. 비이직자 이직 시도 경험	136
표 V-11. 비이직자 이직 시도 이유(복수 응답)	137
표 V-12. 직종별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비율	139
표 V-13. 2020년 1월-2021년 11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직종 종사자 수 비교	140
표 V-14.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이유(복수 응답)	143
표 V-15. 직종별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이유(복수 응답)	145
표 V-16. 구직 시도 시 경험한 어려움(복수 응답)	14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I-1. 대주제별 과제 수행 비율(2010~2021년)	23
그림 II-2. 활동 및 진로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24
그림 II-3. 참여 및 권리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28
그림 II-4. 보호 및 복지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32
그림 II-5. 발달과 환경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38
그림 II-6. 정책 및 정책기반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43
그림 III-1. 2010년~2016년 중1패널 개인 차원 변수의 추이	54
그림 III-2. 2010년~2015년 중1패널 학교 차원 변수의 추이	56
그림 III-3. 2010년~2016년 중1패널 지역사회 차원 변수의 추이	57
그림 IV-1. 청년특별대책 추진 체계도	83
그림 IV-2. 정책별 사전 인지 여부	89
그림 IV-3. 정책별 청년에게 도움 여부 평가	89
그림 IV-4. 정책별 이용 의향 여부	90
그림 V-1. 2021년 11월 종사상 지위	125
그림 V-2.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 직종	130
그림 V-3. 직장 그만둔 이유를 코로나19 감염 우려 또는 폐업이라고 응답한 비율(복수 응답)	14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목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부터 약 32년간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연구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청소년 관련법의 제·개정이 있었고 기관의 명칭도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 1993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거쳐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최근에는 청년연구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 있는 청소년·청년(youth)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소년정책 연구의 최신동향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인 ‘정책동향분석’이 본 연구과제의 상위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본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하여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 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본 연구는 크게 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본 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한 연구 과제를 청소년정책 및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청소년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참고하여 본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긴급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한다. 각 영역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2010~2021년)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수행한 연구과제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개별 연구과제를 주제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류하여 주제 분류를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과제들을 주제별로 재배치하고 주제 분류들을 다시 수정하는 귀추의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과제 분류를 정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내용을 참고하였다.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 분류를 마친 후에는 주제 분류 내용을 기초로 본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부터 2013년까지 25년간의 연구과제를 분석한 김정숙(2014)의 연구들을 참고하였고,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국회의 청소년 관련 법 입법 동향, 연구기관 평가 결과 내부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와 국회 입법안 등을 최신 동향 선정에 특별히 참고하였으며, 별도로 정리하여 본 연구원 홈페이지 정책동향 게시판에도 게시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정책연구의 최신 동향 세 가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2) 청소년정책연구 최신동향 연구

(1)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분석에서 발견한 청소년정책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가 실증자료를 통해서도 발견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021년 8월 26일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주요 신규 정책 10가지

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알아보았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각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사전인지여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이용 의향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을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석하였다.

(3)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 15~34세 청소년·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청년 근로 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한 조사지를 통해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의 종사상 지위와 근로직종 및 근로환경의 변화, 변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법과 추진절차를 도식화한 연구추진체계는 그림 I-1과 같다.

연구목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동향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 청소년·청년 관련 정책연구 최신동향 탐색 및 관련 주제 조사 분석 결과 제공	
관련 자료 조사	
◦ 자료조사 ◦ 문헌연구	•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보고서 및 학술지 검토 •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검토 • 국회의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검토 • 연구기관 평가 관련 내부 자료 검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 주제 분류 분석 ◦ 전문가 의견 조사	[본 연구원 연구과제(2010~2021년) 동향 분석] • 주제 분류틀 개발 및 주제 분류 • 연구 동향 분석 및 최신 동향 선정 • 성과 및 개선점 논의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 2차 자료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기 및 2기 자료 분석] • 2010년 중1 코호트 발달 변화 분석 • 4개 코호트 비교를 통한 청소년 발달 환경 변화 분석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 전문가 자문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 통계분석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 “청년특별대책” 10개 신규정책 의견 조사 설문지 개발 및 전문가 감수 •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 기초 통계 분석 - 대상: 만19~34세 청년 1,000명 - 표집방법: 할당표집 (‘2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기초) - 조사방법: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패널 활용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병행)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 전문가 자문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 통계분석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 설문지 개발 및 전문가 감수 •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 기초 통계 분석 - 조사대상: '20년 1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했던 만15~34세 청소년·청년 800명 - 표집방법: 유의할당표집 - 조사방법: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패널 활용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병행)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제2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2.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연도별 주제 분류
-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국회의 관련법 입법 사항을 살펴보고 연구원의 연구과제 동향을 분석결과를 제시한 다음 주제별로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2조제1항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12. 20.).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5년마다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표 II-1. 제4~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4차(수정·보완) (2008~2012)	제5차 (2013~2017)	제6차 (2018~2022)
비전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책 영역 및 중점 과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확대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유익한 환경 조성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범부처 총괄조정기능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자가 재구성		

이 연구에서 살펴볼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행된 과제들이며, 해당 기간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제4차(2008~2012년), 제5차(2013~2017년), 제6차(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II-1과 같다.

1)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2007년 말 수립 당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복지 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4가지 정책 영역을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의 명칭도 제3차 기본계획까지의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2008년 2월에 이관되고, 2010년 3월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약 2년간 시행계획이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는 기존의 기본계획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수정·보완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새롭게 발표되기에 이른다(관계부처 합동, 2010). 새롭게 발표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가지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라는 5가지 정책 영역을 설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해보면 비전에서 ‘가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정책 영역에서도 가족은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영역 아래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영역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진로 교육 등의 정책 과제를 포함시키고 ‘보호’와 ‘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강조하고 기존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3. 6.). 이전 계획의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5가지를 설정하였다. 제4차 및 제5차 기본계획과 확연히 달라진 점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전에 제시한 ‘역량 증진’ 또는 ‘역량 강화’ 대신 ‘활동’을 강조하면서 해당 영역 아래 진로교육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 정책영역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되었던 이전 기본계획과 달리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성장환경과 관련된 독립영역이 부재하며, 중점 과제에서 ‘가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여기서는 청소년 관련법 6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현행법 중에 법령명에 ‘청소년’이 포함된 법률은 6개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연령의 범위는 법마다 상이하여 역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검토해야 할 청소년 관련법의 범위는 32개 법률과 35개 조항에 이른다(장민선 외, 2018). 일례로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24세인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34세로 서로 다른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6개 법률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에 입법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표 II-2에 요약하였다.

표 II-2. 2010~2021년 청소년 관련 6개 법률 주요 입법 내용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10	청소년 기본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 성범죄자 온라인 신상정보 제공 허용 (‘08년 말 조두순 사건 발생 후 ’09년 관련법 발의 다수) 주취감경조항 적용 불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등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11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육성 개념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 포함 / 방과후활동 지원방안 청소년 권리 및 참여 보장, 활동 지원, 지도사 및 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수련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시에도 지자체장의 허가로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위기청소년 유형별 보호 및 지원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재심의 제도 도입 셋다운제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 / 매체물에 인터넷뉴스 포함 /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게임 관련 일부 업종 등 추가
		(음반심의 결과 논란)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 단축 및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강화 /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게임 관련 일부 업종 등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음주 또는 약물 감면 배제 의무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보 제공 처벌, 반의사불벌죄 해당 일부 범죄 비친고죄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상향 / 성범죄자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 확대 등
'13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및 안전 강화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학생 인명사고)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강화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설치
	청소년 보호법	(셋다운제 이후 비디오품과 게임물 이용 시설 동시 제공하는 등의 신종 영업소 증가) 복합영상물제공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추가
'14	청소년 기본법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 성년후견제 규정 정비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출연 근거를 마련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함
		경마·경정·경륜 투표권 발매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포함 /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 지원센터 설치 등
'15	청소년 기본법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 지자체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분석·평가 의무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결격사유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개 / 시행령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정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현행 규정 정비
'16	청소년 보호법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 관계자 직무상 비밀 누설 처벌
	청소년 기본법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신고 의무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에 활동 계획 신고 지원 및 안전교육지원 추가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의무 설치 규정 삭제 등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뒤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갈 수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있도록 규정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에 성별 특성 고려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썬터 퇴소 불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강박의 경우 업주 처벌 면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사용 제한 및 처벌 강화 / 청소년 혼숙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계산 방식 규정 등
‘17	청소년 기본법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 및 협의 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 포함 등 청소년 자치권 및 참여권 보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위생 점검, 허가 또는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의 제명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필수 물품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신문만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적극적 확인 의무 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 후 확진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는 등 건강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주체에 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 기간 차등 및 취업제한 기관에 학교 등 포함
‘18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단체의 임원 자격 상실에 관하여 경합범 차별 발생 방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의 수리 및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처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근거규정 마련 등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만 임기가 적용되도록 정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 및 민간위원 공개모집 위촉,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규정 강화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등
'20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관리 강화 /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실시 및 지원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출연금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배제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처벌 강화 16세 미만 성매매 가중처벌 / 13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조력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등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출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 /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등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 /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강제퇴소 청소년을 다른 기관에 인계할 의무

의결 연도	법령명	주요 내용
	청소년 보호법	심야시간 청소년 이용 매체 다양해짐. 섯다운제 폐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주기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 /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그루밍 이슈)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 등에 관한 처벌 규정 상향 및 신설 등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검색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 및 재구성

* 주: 같은 법의 다른 행은 의결 일자와 의안번호가 다른 경우임. 특기할 만한 입법 배경은 괄호 안에 서술하였음.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연도별 주제 분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한 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주제 분류하였다.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크게 기본과제와 수시 및 수탁과제로 나뉘는데, 이 과제를 모두 합쳐 지금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2년 간 한 해 평균 약 60여 개의 청소년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 분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2010년 이후의 과제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김정숙(2014)의 연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과제 동향을 분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2010년부터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틀 개발과 분류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제명을 기준으로 각 연구과제를 주제에 따라 중복 분류하여 귀납적으로 주제 분류틀을 만들고 범주명을 정하였다. 만들어진 분류틀 범주에 따라 과제를 재분류하고 다시 범주명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분류틀 초안을 만들었다. 분류틀 초안과 분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6인에게 서면자문을 의뢰하였다.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틀을 수정하고 과제를 재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에 분류틀과 분류내용에 대한 2차 자문을 의뢰하였다. 2차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주제 분류틀과 분류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주제별 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 과제 수(2010~2021년)

단위: 개

주 제 \ 연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활동 및 진로	8	15	17	18	20	15	12	9	11	12	9	9
활동	8	10	11	7	9	8	5	6	4	4	4	3
국제교류	0	1	0	3	2	3	1	1	0	1	1	1
진로 및 일자리	0	4	6	8	9	4	6	2	7	7	4	5
참여 및 권리	5	6	5	10	5	11	11	11	5	5	5	10
참여	1	1	3	7	2	3	3	6	1	0	1	3
권리	2	2	1	1	1	3	2	3	2	4	4	3
시민의식 및 역량	2	3	1	2	2	5	6	2	2	1	0	4
보호 및 복지	12	13	18	18	31	17	13	8	24	23	17	24
보호 및 자립	7	7	7	5	7	2	5	4	11	10	5	8
돌봄	2	3	2	5	3	2	2	2	2	2	3	3
장애	1	1	0	0	0	0	0	0	0	0	0	2
학업중단 및 학교밖청소년	1	1	2	2	16	11	5	2	6	7	4	4
학교폭력	1	0	3	3	4	1	0	0	4	4	3	5
정신건강	0	1	4	3	1	1	1	0	1	0	2	2
발달과 환경	8	17	19	14	13	12	21	13	12	12	19	23
가치관 및 발달 일반	3	6	7	4	0	2	4	2	2	2	2	3
위험 환경	1	0	4	2	1	1	1	2	1	1	4	6
미디어 환경	2	1	4	4	8	3	5	2	3	0	6	6
이주배경/다문화	2	4	1	2	1	2	5	3	3	3	3	3
지역사회	1	6	3	2	3	4	6	4	3	6	5	5
정책 및 정책기반	19	12	27	24	34	39	26	25	23	28	30	29
법/제도/정책	3	3	9	5	10	9	10	7	10	9	9	13
전달체계 및 인프라	13	6	13	13	18	23	11	12	5	9	12	12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	4	4	6	7	7	8	6	7	9	11	10	5
총 과제 수	44	59	66	64	73	71	62	54	57	62	64	71

* 주: 하나의 연구과제가 여러 주제에 중복 분류될 수 있으며, 연도별 열의 총합은 총 과제 수와 다름.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총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로 이루어진 분류틀이 도출되었다. 5개 대주제는 활동 및 진로, 참여 및 권리, 보호 및 복지, 발달과 환경, 정책 및 정책기반이며, 이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영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을 보면 연도별로 주제별 과제 수행 비율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책 및 정책기반’ 연구 수행 비율이 매해 가장 높고, ‘참여 및 권리’에 관한 연구는 수행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및 진로’에 관한 연구의 수행 비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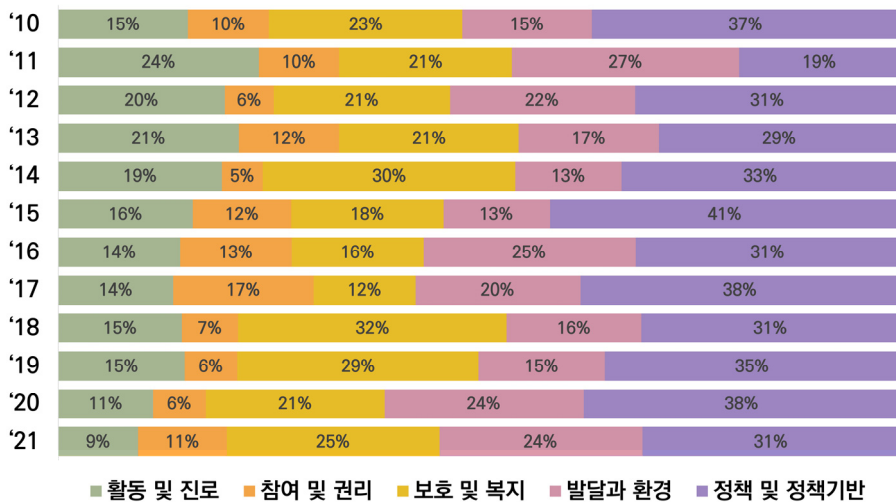


그림 II-1. 대주제별 과제 수행 비율(2010~2021년)

이 절에서는 본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를 분석하여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주제별로 서술하였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국회의 관련법 입법 내용, 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내부자료를 분석에 참고하였다.

1) 활동 및 진로

‘활동 및 진로’ 대주제는 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의 3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10~2012)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정책 영역 아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획확대’와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정책 과제가 여기에 해당하며,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의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과제와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이 ‘활동’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로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가 있다. 청소년 관련법 중에 활동 및 진로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 및 진로에 관한 연도별 과제 수행 건수의 변화는 그림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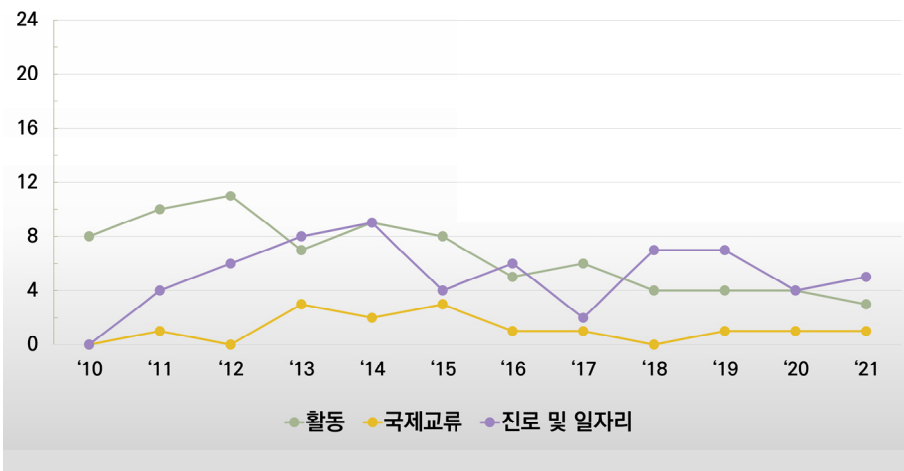


그림 II-2. 활동 및 진로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1) 활동

활동 소주제에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분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3과 그림 II-2에 제시된 연도별 과제수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청소년 활동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기본계획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부터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 영역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주제와 관련된 연구 수행 건수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가상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창의적인 연구주제 발굴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학기제와 방과후아카데미에 관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수행된 점이다. 2013년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운영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2010년 운영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한 이후로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관리체계 개선 연구,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등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활동’ 주제 영역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통해 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교류

국제교류 주제는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해의 연구 건수가 3건이며, 관련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영역 아래 세부과제로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던 제5차 기본계획 시기인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나마 관련 연구가 꾸준히 1~3건 수행되었을 뿐이다. 그만큼 국제교류 주제는 ‘활동 및 진로’ 대주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주제의 여타 소주제에 비해서도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청소년 국제교류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관련 정책을 체계를 정비하고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제명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제교류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의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자문 조사에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교류 관련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겪었던 청소년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교류 뿐 아니라 청소년이 해외 우수 청소년정책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진로 및 일자리

진로 및 일자리 소주제에 분류된 연구는 크게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근로 청소년

년 실태와 권리, 청년 일자리로 나뉜다. 제4차 기본계획의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제5차 기본계획의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중점과제가 이 주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진로 및 일자리 주제는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수행되지 않았던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행된 진로 및 일자리 관련 과제는 대부분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진로·직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방안을 담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 청소년 실태와 권리에 관한 연구들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비교적 꾸준히 수행해온 연구이다. ‘참여 및 권리’ 대주제의 ‘권리’ 소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근로 청소년 실태와 권리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인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로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연구는 2015년에 처음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2013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청년위원회가 설치되고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에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과제에 청소년과 함께 청년이 정책 대상으로 명시된 이후로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를 비교적 잘 수행해왔다. 앞으로 본 연구원이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연구의 양과 질을 확대해나가며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소통해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참여 및 권리

‘참여 및 권리’ 대주제는 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의 3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10~2012)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정책 영역 아래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정책 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의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과제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의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 증진 기반 조성’ 과제가 참여 및 권리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가 해당한다. 참여 및 권리에 관한 연도별 과제 수행 건수의 변화는 그림 II-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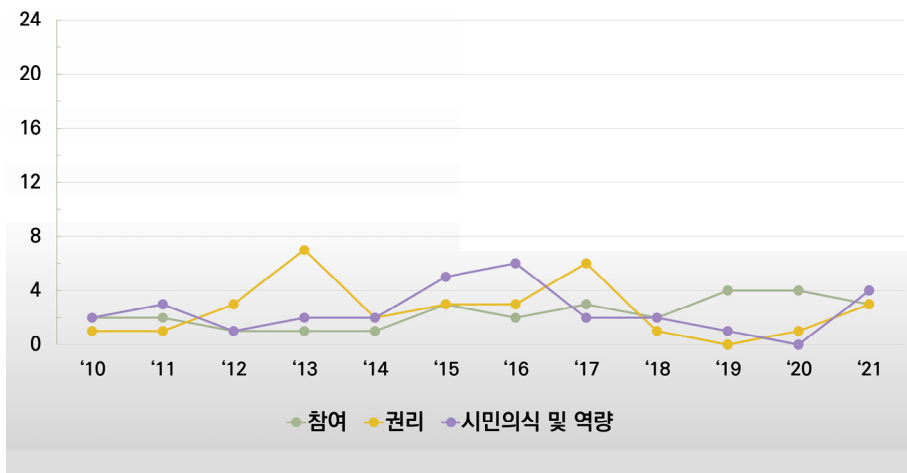


그림 II-3. 참여 및 권리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1) 참여

참여 소주제로 분류된 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모니터 단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여는 제5차 기본계획의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와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주제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참여’라는 주제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5차와 제6차 기본계획에는 청소년 참여가 정책영역의 핵심어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일부 연구들이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에 기여한 것은 청소년 참여 관련 정책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참여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없었으며, 당해년도 기관평가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양과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권리

권리 소주제는 제 5차 기본계획의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제5차와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과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 청소년의 여러 권리에 관한 연구과제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권리들을 연구에서 다룬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인권실태 연구가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권리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3년까지의 과제를 분석한 김정

숙(2014)의 연구는 권리와 관련한 연구가 실태조사에서 더 나아가 개별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후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원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과제 수는 매해 평균 2건 정도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제5차에 이어 제6차 기본계획에도 청소년 권리 증진이 정책영역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가 본 연구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의식 및 역량

시민의식 및 역량 소주제에는 세계시민의식, 통일의식, 젠더 의식, 다문화 이해, 인성교육, 민주시민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의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의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와 제5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등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이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청소년 역량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시민의식 및 역량 연구는 그 수가 현저하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등 청소년의 시민성과 관련된 여러 기초연구들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민 의식과 역량 증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호 및 복지

‘보호 및 복지’ 대주제는 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의 6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10~2012)에서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영역 아래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영역 아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의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과제와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의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정책 과제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이 ‘보호 및 복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영역이며, 세부 정책과제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있다. 청소년 관련법 중 보호 및 복지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보호 및 복지’ 대주제는 가장 많은 소주제를 포함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 관련법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서 복지국가의 법과 정책에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는 주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호 및 복지 관련 연구과제의 관한 연도별 수행 건수는 그림 I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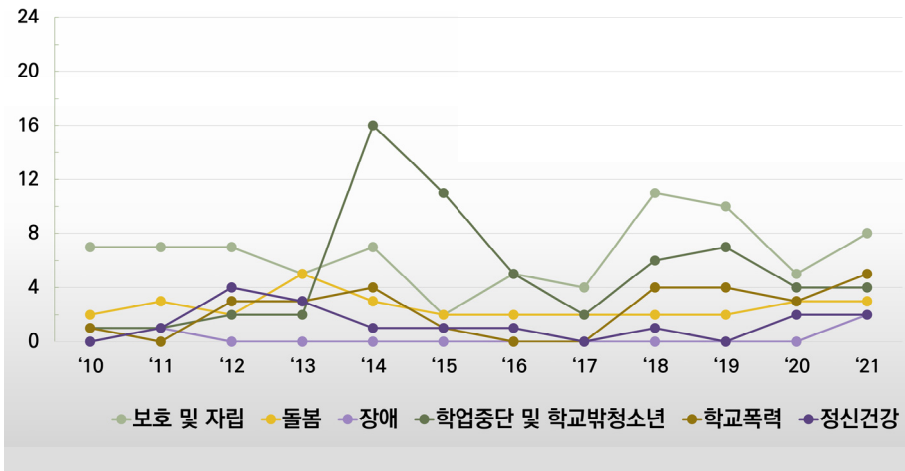


그림 II-4. 보호 및 복지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1) 보호 및 자립

보호 및 자립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연구주제 중 하나이며, 정책대상이 다양한 만큼 보호 및 복지 대주제 중에서도 과제 수가 가장 많은 소주제이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성보호, 범죄 피해 보호, 소년범죄자 관련 연구 등이 보호 및 자립 소주제에 해당하며, 소외·취약계층 청소년,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연구들도 보호 및 자립 소주제로 분류된다.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5차 기본계획부터 보호 및 지원과 더불어 '자립'이 정책영역에 주제어로 추가되었고 본 연구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수행한 연구과제들의 제목에서도 '자립'의 핵심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예산을 편성한 2019년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연구들이 '자립'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른 바 있으며, 이들의 ‘자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7. 1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도 청년 정책과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양질의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돌봄

돌봄 소주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연구를 포함한다.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패널조사와 효과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2017년에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운영 실무 매뉴얼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최근에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년 4월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박지영, 2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정부는 해당 계획을 각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분절적 추진과 연계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박지영, 2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처럼 돌봄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축소되기 보다는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돌봄은 본 연구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초기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정책 사업의 효과성과 전달체계의 효율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돌봄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등의 기초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장애

장애 소주제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건씩 수행된 이후로 2020년까지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수행되지 않은 연구주제이다. 물론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 청소년을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일부로 간주하고 해당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적은 있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한 연구는 10여 년간 한 건도 없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본 연구원이 수탁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연구가 올해 기관 고유 과제로 수행되었다. 2019년 12월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교육부, 2019. 11. 19.)되는 만큼 본 연구원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소주제는 2015년부터 본 연구원에서 운영해온 학업중단예방센터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관련 연구 및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포함한다. 2013년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학업중

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해당 정책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2014년부터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340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교육부, 2014. 2. 27.), 같은 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5. 2.). 2013년까지 수행한 관련 과제 수가 1~2건에 그치던 것과 대조적으로 지원 방안 발표 이후로 정책의 본격적 도입 단계였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6건과 11건의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21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정비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행정안전부 2021. 3. 23.)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연구원은 앞으로도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주제와 관련하여 관련 센터의 운영을 통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질적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기초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학교폭력

학교폭력 관련 연구과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부터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은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학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연구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추가되어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대상 연령과 주제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속에 전면등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알파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학교폭력인 사이버 불링도 앞으로 더 많은 기초 연구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한 영역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정책 당사자인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기초연구를 보완하여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관련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정신건강

정신건강 소주제는 약물이나 도박, 게임 등에 대한 청소년의 중독 연구와 자살 및 일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이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수행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 관련법과 정책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 기본법」의 이념과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제2조)에서도 ‘참여’, ‘창의성’, ‘자율성’, ‘능동적 삶’,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등이 핵심어로 등장하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태어나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알파세대(Generation Alpha)’의 사회적 의제는 ‘정신건강’이다(김소희, 2020. 4. 20.). 알파세대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맥크린들(McCrindle, M.)의 말처럼 앞으로 본 연구원이 연구하고 지원해야 할 새로운 청소년 세대는 정신을 단련하여 불안을 조절하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인 것이다(김소희, 2020. 4. 2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관계 기관이 협동과제로 수행하였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와 같은 정책

연구과제들이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발달과 환경

‘발달과 환경’ 대주제는 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의 5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영역의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과제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영역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유익한 환경 조성’,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정책 과제가 ‘발달과 환경’ 대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의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정책 과제가 연관이 있다.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정책 영역에 청소년 성장 환경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과제가 ‘발달과 환경’ 대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발달과 환경’ 대주제 분류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정책 연구들 중 본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던 주요 성장환경들이 개별 소주제로 도출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근접한 환경이며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환경에 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제4차와 제5차 기본계획과 달리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가족 또는 가정환경에 관한 정책과제가 제외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 가족 또는 청소년이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은 앞으로 청소년정책 연구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과 환경에

관한 연도별 과제 수행 건수의 변화는 그림 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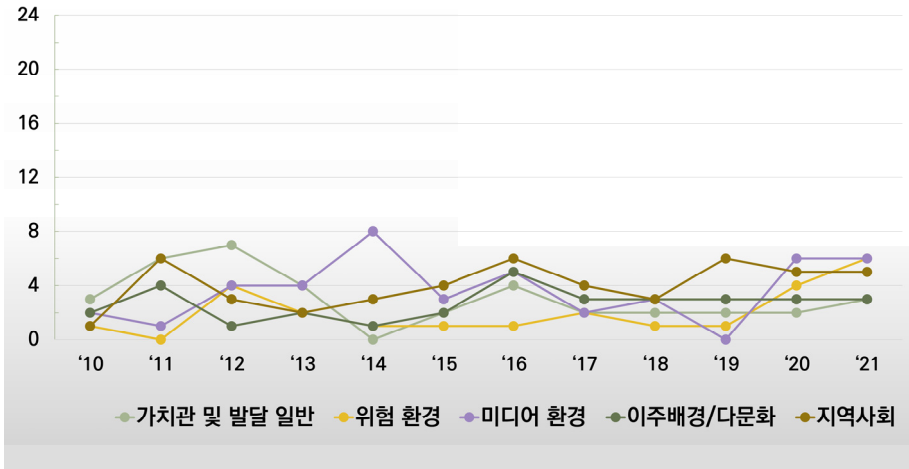


그림 II-5. 발달과 환경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1) 가치관 및 발달 일반

가치관 및 발달 일반 소주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조사와 더불어 놀이나 건강, 삶의 질 등 일반적인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나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 정책’ 등과 같은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환경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도 가치관 및 발달 일반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는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연속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속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다행히 발달에 관한 추적조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에

관한 연구도 이처럼 연속성 있는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비교 등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위험 환경

위험 환경 소주제는 청소년 보호와도 관련이 깊은 주제이다. 수행된 연구과제명을 살펴보면 주로 ‘유해 환경’이라는 단어를 핵심어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4차와 제6차 기본계획 세부과제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가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도 함께 포함하여 해당 범주의 이름을 ‘위험 환경’으로 정하였다.

최근 2년간 가장 큰 위험 환경은 역시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들이 위험 환경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대면수업과 대면활동이 중단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환경 속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2년을 제외하면 위험 환경 소주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위탁하여 본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이다. 해당조사는 2015년에 조사항목 개선 연구를 거쳐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통합되었으며, 2016년 이후로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조사명을 변경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명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SNS가 활성화 되는 등의 영향으로 매체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요 환경 중 하나가 되었다. 흡연이나 음주 등과 관련된 위험 환경 연구가 진행되던 이전과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 환경을 살펴보는 실태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위험 환경의 개선을 본격적인 목표로 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미디어 환경

미디어 환경은 ‘발달과 환경’ 대주제에서 별도의 소주제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앞서 위험 환경 소주제를 다른 단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Prensky, 2001)인 지금 청소년 세대에게 미디어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달환경일 것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를 별도의 정책 과제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환경의 영향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별 연구과제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매체이용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등 이름이 다른 비슷한 유형의 실태조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2011년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나 건전이용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해서 수행해왔다. 게임 셧다운제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데, 그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게임 이용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알파세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지금 청소년 세대에게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이 더 익숙한 기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되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심의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뉴미디어 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에 관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이주배경/다문화

이주배경과 다문화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둘러싼 환경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 중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다문화 청소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과 다문화를 발달 및 환경 대주제에 속하는 하나의 소주제로 보고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연구도 포함하고자 한다. 즉, 이주배경/다문화 소주제에는 재외동포, 중도입국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하는 이주배경/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청소년들의 다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세부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가 매년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매년 수행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6년간은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된 바 있다. 그 밖에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유학 청소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연구가 일회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을 연구하고,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된 해도 있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앞으로는 다문화·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더 많은 다문화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사회

지역사회 소주제는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돌봄,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등이 지역사회 소주제에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지역사회 소주제로 분류된 것은 이 연구들이 모두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 중 하나이자 정책 전달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부터 7년에 걸쳐 수행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이며, 2013년부터 시작된 제5차 기본계획의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정책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연구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소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원이 청소년 발달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청소년 정책의 전달·추진체계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며 청소년정책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정책 및 정책기반

매년 수행건수가 가장 많았던 ‘정책 및 정책기반’ 대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는 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의 3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정책 및 정책기반 관련 연구과제의 연도별 수행 건수는 그림 II-6과 같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및 정책기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영역을 항상 주요 정책 영역으로 제시해왔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로,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관련 정책 영역을 설정하였다. 영역명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정비-강화-혁신으로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 개편’, ‘범부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해당 영역의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제6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제도/정책에 관한 연구, 인력과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하는 전달체계와 인프라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자료 수집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나누어 정책 및 정책기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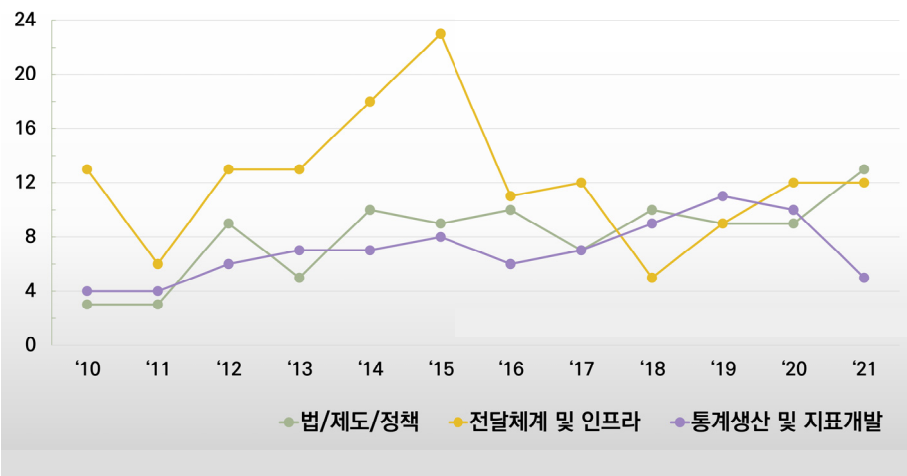


그림 II-6. 정책 및 정책기반 과제 수행 건수(2010-2021년)

(1) 법/제도/정책

청소년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를 법/제도/정책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법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의 제·개정은 청소년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본 연구원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로 본 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의 도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매년 평균 8건 정도씩 꾸준히 수행해왔다. 해당 연구들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세부 제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연구’나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등 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관한 연구에까지 이른다. 또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여 청소년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청년에 관한 정책 기초를 마련하는 연구도 본 연구원에서 다수 수행되고 있다.

(2) 전달체계 및 인프라

전달체계 및 인프라 소주제는 인력, 시설 및 기관, 특정 사업 및 정책의 추진방안이나 개선방안, 매뉴얼 개발 등의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등이 있는데 본 연구원은 해당 전문인력의 역량 향상이나 자격제도 정비 및 보수교육,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나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청소년 활동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시설 및 기관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와 같은 연구도 수행하였다. 지자체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 시설의 건립 방안 및 운영계획, 청소년·가족 연계 서비스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고도화 등도 전달체계 및 인프라 소주제에 해당하는 과제들이다.

본 연구원이 수행한 전달체계 및 인프라 관련 연구는 다른 주제의 연구와 비교할 때 평균 수행 빈도가 가장 높다. 전달체계 및 인프라 안에 인력과 시설, 추진 및 시행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인력과 조직과 시설 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달체계 및 인프라에 관한 연구는 인력, 시설,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달체계 및 인프라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관련 연구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확장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와 인프라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강화 방안’, ‘정보기술을 이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청소년 빅데이터 구축 활용방안 연구’ 등이 그 예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활동 시설 등 기존의 전통적인 청소년 관련 시설과 최근에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소년 관련 온·오프라인 인프라 사이에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3)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 소주제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횡단과 종단으로 수집하는 다양한 조사와 지표개발 연구들이 분류되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연구로 학술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실제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취약계층이나 학업중단청소년 처럼 국가 단위의 기관이 아니면 추적조사가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한 종단연구도 수행하여 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에 공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아동·청소년통합 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같은 횡단자료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정책 평가 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통계조사와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 하는 연구에까지 참여하며 아동·청소년·청년과 관련된 통계생산과 지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발달과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세대변화를 포착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단 및 횡단조사 자료가 꾸준히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2021년 연구 동향 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온라인 세계의 확장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활동,

국제교류, 참여 등 오프라인 기관과 대면활동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발달과 환경 대주제와 관련해서도 미디어 환경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들에 대한 연구,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대상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청년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필요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쏟아지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여 적시에 필요한 청년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생애 각 발달단계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생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과정을 연구하고 지원하며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주제별로 과제 수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소외되는 연구주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10년 이후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수의 분포를 보면 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있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사회 환경의 변화나 특정 이슈의 발생 등에 의해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가 더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 뿐 아니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각 요소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 연구 뿐 아니라 관련 기초 연구도 꾸준히 수행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반을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연구들이 단편에 그치지보다는 정책제안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해당 정책의 실행과 평가에 관한 후속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이나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다양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및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정책의 실행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업하고 연계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연구단계에서부터 교육, 경제, 복지, 주거 등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의 연계를 고민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청소년 정책 연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부터는 최근에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중 미디어, 청년, 코로나-19 세 가지를 선정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는지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발달 변화와 발달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이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지난 2021년 8월 26일에 새롭게 발표된 청년 정책 중 10가지를 선정하여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청소년·청년들의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의 종사상 지위와 근로직종 및 근로환경의 변화, 변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 1. 2010년 중학교 1학년
발달추이분석
-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은 본원에서 수집하고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CYPS 1기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발달 변화를 분석하여 2010년 14세부터 2016년 20세에 이르기까지 국내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KCYPS 1기와 2기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4개 코호트(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 특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1. 2010년 중학교 1학년 발달추이분석

1) 분석대상

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KCYPS 1기 중1 패널)이 2010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16년 20세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0년 중학교 1학년 패널은 2,35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단계층화집락추출의 방법으로 표집하였으며, 7차 조사시점에 원표본 유지율은 80.0%(1,881명)이었

*이 장은 인천연구원의 이수현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음.

다. 2010년 KCYPs 패널조사는 표본 대체가 없는 단일표본설계로,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는 데이터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 분석내용

발달의 내용은 개인 차원, 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차원별 세부 항목 및 측정 방식은 아래 표 III-1과 같다. 개인 차원의 세부 항목으로는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교 차원의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 적응의 네 가지 측면(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 포함되었다. 학습활동 항목에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정도를 ‘학교 숙제를 빠트리지 않고 한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교규칙 항목에서는 교내 규칙에 대한 적응 정도를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교우관계 항목에서는 학교 내 친구들과의 적응 정도를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 항목에서는 교사에 대한 적응 정도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016년에는 2010년 중1 패널이 20세가 되어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난 연령에 도달하였으므로 학교적응 변수를 측정하지 않은 까닭에 해당 연도의 자료는 학교적응 변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의 세부 항목으로는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이 포함되었다.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이 스스로 공동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사회인식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등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항목별로 역문항이 있을 경우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분석에는 단일 문항인 ‘주관적 건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항 평균을 활용하였다.

표 III-1. 중1 발달추이분석 활용 변수

차원	변수	문항 수	역문항 수	점수 범위
개인 차원	주관적 건강	1	0	1-4
	삶의 만족도	3	0	1-4
	자아존중감	10	5	1-4
학교 차원	학교적응: 학습활동	5	1	1-4
	학교적응: 학교규칙	5	0	1-4
	학교적응: 교우관계	4*	1	1-4
	학교적응: 교사관계	5	0	1-4
지역사회 차원	공동체의식	6	1	1-4
	지역사회인식	4	0	1-4

* 주: 교우관계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5번 문항을 제외함

3) 분석결과

(1) 개인 차원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아래 표 III-2

및 그림 III-1과 같다. 주관적 건강은 14세에서 20세에 이르기까지 평균 3.12 점~3.24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일관적 변화 없이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표 III-2. 2010년~2016년 중1패널 개인 차원 변수의 추이

변수	2010 (중1)	2011 (중2)	2012 (중3)	2013 (고1)	2014 (고2)	2015 (고3)	2016 (20세)
주관적 건강	3.18	3.20	3.21	3.24	3.12	3.23	3.19
삶의 만족도	2.83	-	2.86	2.83	2.80	2.89	2.84
자아존중감	2.79	-	2.82	-	2.90	2.92	2.94

* 주: 2011년 삶의만족도, 2011년 및 2013년 자아존중감은 측정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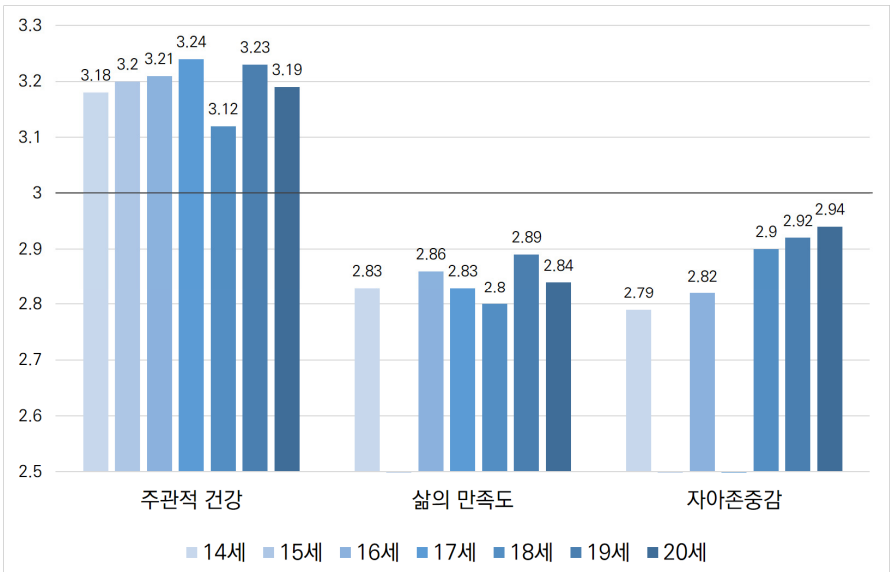


그림 III-1. 2010년~2016년 중1패널 개인 차원 변수의 추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평균 3.18점~3.21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변동의 폭이 작았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평균 3.12점~3.24점으로 중학교 시기에 비하면 변동의 폭이 조금 더 컸다. 고2 시기에 주관적 건강 점수가 3.1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동안 평균 2.83~2.89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2.83~2.86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2.80~2.89점, 20세에는 2.84점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역시 주관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고2 시기에 점수가 가장 낮았다(2.80점). 자아존중감은 14세~20세 기간 동안 평균 2.79~2.94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2.79~2.82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2.90~2.92점, 성인기에는 2.94점으로 연령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은 모든 시점에 3점 이상을 유지하였고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은 3점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2) 학교 차원

학교적응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는 아래 표 Ⅲ-3 및 그림 Ⅲ-2와 같다. 학습활동 적응의 평균은 2.72~2.79점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규칙 적응의 평균은 2.78~3.02점 사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평균 2.78~2.89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평균 2.96점~3.02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규칙 적응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적응은 중1~고3 시기 평균 3.15~3.16점으로 변동 폭이 매우 작았다. 교사관계 적응은 시기별로 평균 2.84~2.90점 사이였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평균 2.87~2.90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평균 2.84~2.88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교사관계 적응이 소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1~고3 시기 학교적응 하위 항목들 중에서 교우관계 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 적응이 가장 낮았다.

표 III-3. 2010년~2015년 중1패널 학교 차원 변수의 추이

변수	2010 (중1)	2011 (중2)	2012 (중3)	2013 (고1)	2014 (고2)	2015 (고3)
학교적응: 학습활동	2.75	2.75	2.76	2.79	2.76	2.72
학교적응: 학교규칙	2.78	2.82	2.89	2.96	3.01	3.02
학교적응: 교우관계	3.15	3.16	3.16	3.16	3.16	3.16
학교적응: 교사관계	2.90	2.89	2.87	2.85	2.84	2.88

* 주: 2016년(20세)는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난 연령이므로 학교적응을 측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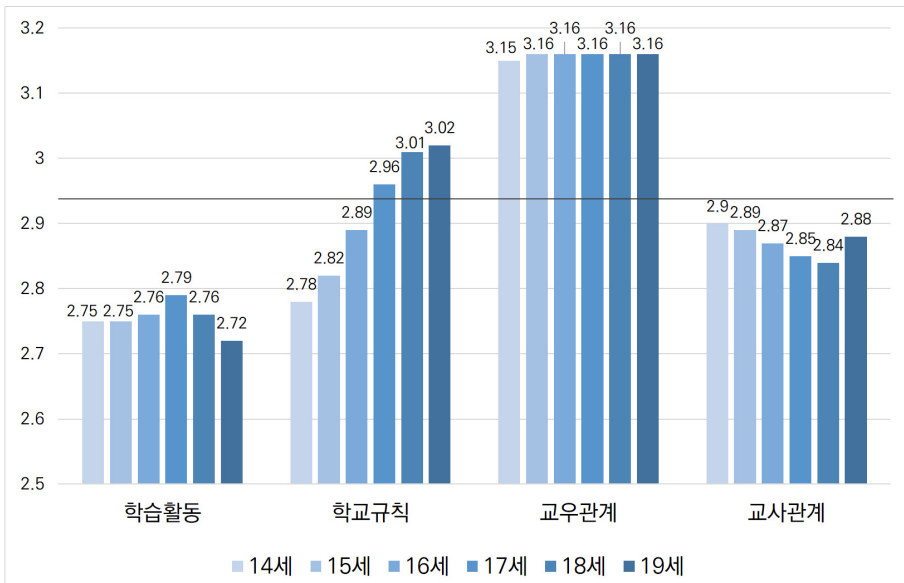


그림 III-2. 2010년~2015년 중1패널 학교 차원 변수의 추이

(3) 지역사회 차원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아래 표 III-4 및 그림 III-3과 같다. 공동체의식은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동안 평균 2.71~2.83점 사이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평균 2.83~2.71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평균 2.72~2.75점, 20세에는 평균 2.75점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역사회인식은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동안 평균 2.80~2.99점 사이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평균 2.74~2.85점, 고등학교 시기에는 평균 2.97~2.99점, 20세에는 2.97점으로 고등학교 이후로 지역사회인식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2010년~2016년 중1패널 지역사회 차원 변수의 추이

변수	2010 (중1)	2011 (중2)	2012 (중3)	2013 (고1)	2014 (고2)	2015 (고3)	2016 (20세)
공동체의식	2.83	2.75	2.71	2.75	2.72	2.73	2.75
지역사회인식	2.80	2.74	2.85	2.99	2.97	2.98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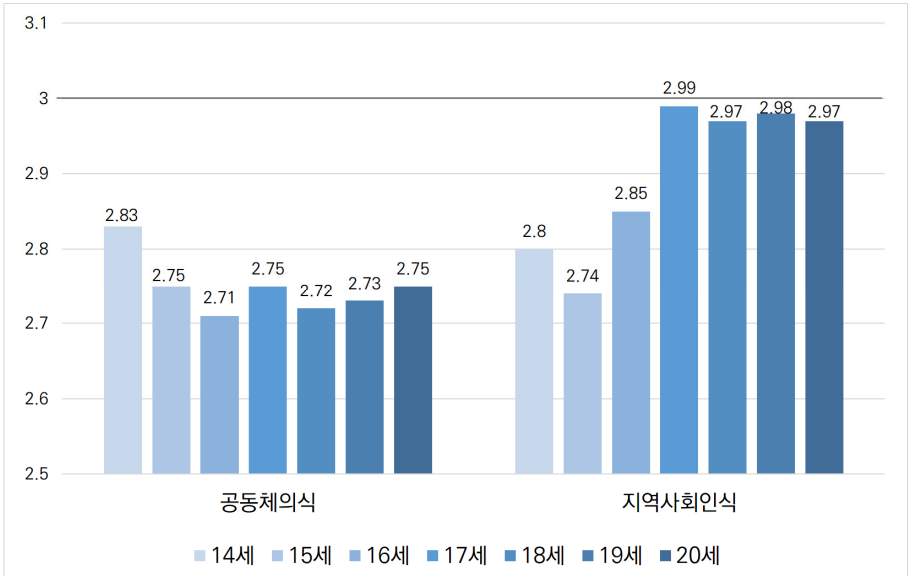


그림 Ⅲ-3. 2010년~2016년 중1패널 지역사회 차원 변수의 추이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분석

1) 분석대상

시대 변화에 따른 중학교 1학년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KCYPS 2010(KCYPs 1기) 중1패널 1차년도(2010년), 초4패널 4차년도(2013년), 초1패널 7차년도(2016년) 자료와 KCYPS 2018(KCYPs 2기) 중1패널 1차년도(2018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패널은 전국 시·도에서 다단계 층화집락추출의 방법으로 표집되었다. 시점별 분석대상은 2010년 2,351명(원표본), 2013년 2,092명(원표본 대비 유지율 88.0%), 2016년 2,002명(원표본 대비 유지율 85.5%), 2018년 2,590명(원표본)이었다.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 문제는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였다.

2) 분석내용

코호트분석에서는 심리적 특성, 시간 사용 특성, 휴대전화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특성에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시간 사용 특성에는 수면시간, 학원/과외시간, 공부시간,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TV/비디오 시청 시간, 컴퓨터 이용 시간이 포함되었다. 휴대전화 이용 특성에는 휴대전화 보유율 및 사용 목적별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포함되었다.

연구에 활용한 패널 변수 및 원자료의 측정 방식은 아래 표 III-5와 같으며, 코호트 분석을 위해 각 변수를 전처리한 내용은 표 III-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5. 중1 코호트분석 활용 변수 및 원자료 측정방식

특성	변수	측정연도	측정방식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2010 2013	10문항/1-4(점)
	삶의 만족도	2016	3문항/1-4(점)
시간사용 특성	수면시간	2010 2013 2016 2018	(주중/주말) 잠자리에 드는 시간(시, 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시, 분)
	학원 및 과외시간	2010 2013 2016	(주중/주말) 일평균 시간(분)
	학교 숙제 시간		
	학원/과외 숙제 시간		
	기타 공부시간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TV/비디오 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학원 및 과외시간	2018	① 전혀 안함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2시간~3시간 미만 ⑥ 3시간~4시간 미만 ⑦ 4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TV를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휴대전화 이용 특성	휴대전화 보유	2010 2013 2016	휴대전화 보유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스마트폰 보유	2018	스마트폰 사용 여부 ① 예. 나의 것이 있음 ② 예. 나의 것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사람 것을 사용함 ③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 통화, 가족 문자, 친구 통화, 친구 문자, 게임,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	2010 2013 2016 2018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가끔 사용한다 ④ 자주 사용한다

표 III-6. 중1 코호트분석 변수 전처리

특성	분석연도	변수	변수특성	범위(단위)
심리적 특성	2010, 2013, 2016	자아존중감	연속변수	1-4(점)
		삶의 만족도		
시간사용 특성	2010, 2013, 2016, 2018	수면시간	연속변수	0-24(시간), 0-60(분)
		학원/과외시간	명목변수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공부시간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TV/비디오 시청 시간		
		컴퓨터 이용 시간		
휴대전화 이용 특성	2010, 2013, 2016, 2018	휴대전화 보유율	연속변수	0-100(%)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 통화, 가족 문자, 친구 통화, 친구 문자, 게임,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	명목변수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가끔 사용한다 ④ 자주 사용한다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분석에는 문항 평균을 사용하였다.

시간사용 특성은 ‘수면 시간’, ‘학원/과외시간’, ‘공부시간’,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TV/비디오 시청 시간’, ‘컴퓨터 이용 시간’ 등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면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사용은 ‘1시간 미만(1)~4시간 이상(5)’의 순차적인 명목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KCYPS 1기와 2기는 시간 사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다음과 같이 변수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 단위와 관련하여, KCYPS 1기의 시간사

용 응답은 분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수집되었으므로, 연속형 응답을 해당하는 명목변수 항목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한편, KCYPS 2기의 시간 사용 응답은 ‘전혀 안함’(1) ~ ‘4시간 이상’(7)의 7개 항목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응답을 ‘1시간 미만’ 항목으로 병합하였고, 최종적으로 ‘1시간 미만’(1)~‘4시간 이상’(5)의 5개 항목으로 재코딩하였다.

측정하는 시간 사용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공부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컴퓨터 이용 시간’이 KCYPS 1기와 2기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공부시간’은 학원 및 과외시간과 구분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2기 패널인 2018년 코호트 자료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항목을 사용하였다. 한편 1기 패널에 해당하는 2010, 2013, 2016년 코호트에 대해서는 ‘학교 숙제 시간’, ‘학원/과외 숙제 시간’, ‘기타 공부 시간’을 모두 합쳐 ‘공부시간’으로 분석하였다. ‘TV/비디오 시청시간’은 2018년 자료에서는 ‘TV를 가지고 노는 시간’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2010, 2013, 2016년 자료에서는 ‘TV/비디오 시청시간’ 항목을 사용하였다. ‘컴퓨터 이용 시간’은 2018년 자료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2010, 2013, 2016년 자료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 항목을 사용하였다. 학원 및 과외 시간, 독서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KCYPS 1기와 2기에 동일한 이름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이용 특성 중 휴대전화 보유율은 휴대전화 보유 여부에 대한 이분형 응답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KCYPS 1기에서는 휴대전화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KCYPS 2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보유 여부와 함께 조사하였다. 2기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는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각 이용 목적에 따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자주 사용한다(4)’의 순차적인 명목변수로 처리하였다. 휴대전화 이용의 목적으로는 KCYPS 1기와 2기에 대하여 동일하

게 수집된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게임’,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 등 8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3) 분석결과

(1)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중1 코호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Ⅲ-7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은 2010년 코호트는 평균 2.79점, 2013년 코호트는 평균 3.05점, 2016년 코호트는 평균 3.08점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삶의 만족도는 2010년 코호트는 평균 2.83점, 2013년 코호트는 평균 3.15점, 2016년 코호트는 평균 3.20점으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이전의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표 Ⅲ-7. 중학교 1학년의 심리적 특성 코호트분석

변수	2010	2013	2016
자아존중감	2.79	3.05	3.08
삶의 만족도	2.83	3.15	3.20

(2) 시간 사용 특성

중학교 1학년의 수면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Ⅲ-8과 같다.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2010년 7시간 53분, 2013년 7시간 43분, 2016년 7시간 50분, 2018년 7시간 58분으로 약 8시간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주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2010년 9시간 30분, 2013년 9시간 6분, 2016년 9시간 8분, 2018년 9시간 21분으로 약 9시간에서 9시간 30분 사이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수면시간은 전반적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더 많았으며,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 모두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10년에 비해 2013년,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I-8.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수면시간 코호트분석

변수	2010	2013	2016	2018
수면시간 (주중)	7시간 53분	7시간 43분	7시간 50분	7시간 58분
수면시간 (주말)	9시간 30분	9시간 6분	9시간 8분	9시간 21분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 학원/과외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주중 학원/과외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27.8%에서 2018년 22.2%로 다소 감소함과 동시에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2010년 기준 17.3%에서 2018년 9.9%로 감소하였다. 반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기준 22.4%로 증가하였으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23.3%에서 30.4%로 증가하였다. 한편 주말 학원/과외시간은 전반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018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줄어든 반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7.7%에서 2018년 11.8%로 소폭 증가하였다.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시기에 따라 72.1%~75.4% 사이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학원/과외시간은 주말에 비해 주중에 더 많았다. 주중 학원/과외시간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1시간 미만이거나 4시간 이상이라는 양극단의 응답이 줄어들고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말 학원/과외시간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III-9. 중학교 1학년의 평균 학원/과외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27.8	29.4	19.8	22.2	72.3	75.3	75.4	72.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1.6	12.7	16.8	22.4	7.7	8.3	7.4	11.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3.3	23.0	28.7	30.4	9.2	8.3	9.3	8.5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0.1	22.5	24.2	15.2	4.6	4.1	5.2	3.8
4시간 이상	17.3	12.5	10.5	9.9	6.2	3.9	2.6	4.0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 공부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0과 같다. 이때 공부시간은 학원/과외시간과는 별도로 숙제, 개인공부 등을 위해 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주중 공부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15.8%에서 2018년 49.9%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2016년에는 해당 응답 비율이 15.8%~22.5% 사이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 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주중 공부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4.3%,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9.4%였으나 2018년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3.6%), ‘4시간 이상’(5.5%) 등으로 나타났다. 주말 공부시간의 경우에도 주중 공부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010년 22.4%에서 2018년 58.9%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과 2018년 사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최근 코호트에서 줄어들었는데, 2010년 기준 주말 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17.2%,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26.9%였으나 2018년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12.4%, ‘4시간 이상’은 3.9%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개인적인 공부시간

은 전반적으로 주말보다 주중에 더 많았으며,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모두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간 사용에 대한 응답을 연속형으로 수집했던 2010~2016년의 1기 패널과 달리 2기 패널인 2018년에는 명목형으로 수집하였으므로 2018년 코호트와 다른 코호트 간의 차이에 관한 해석은 측정방식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0. 중학교 1학년의 평균 공부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15.8	22.5	18.6	49.9	22.4	32.2	31.0	58.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3.6	29.6	27.3	26.8	19.7	21.0	19.2	20.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4.3	22.7	26.9	13.6	17.2	16.9	18.3	12.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6.9	15.5	15.4	4.2	13.9	14.0	14.0	4.1
4시간 이상	19.4	9.7	11.9	5.5	26.9	15.8	17.6	3.9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 독서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1과 같다. 주중 독서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66.6%에서 점차 늘어 2018년에는 81.3%로 증가했다. 반면 주중 독서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들었다. 2010년 기준 주중 독서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5.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5.7%였으나 2018년에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2.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3.5%) 등으로 감소하였다. 주말 독서시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말 독서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57.0%에서 점차 늘어 2018년 80.3%로 증가했다. 반면 주말 독서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주중과 마찬가지로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들었다. 2010년에 주말 독서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7.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10.5%였으나 2018년에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12.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5.3%로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은 코호트에 관계없이 주중과 주말의 독서시간량이 비슷한 가운데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독서시간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대부분의 응답자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의 독서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중학교 1학년의 평균 독서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66.6	73.8	77.1	81.3	57.0	70.4	70.0	80.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5.7	20.5	17.6	12.6	27.0	20.6	21.2	12.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7	4.2	3.7	3.5	10.5	6.4	6.0	5.3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5	1.3	1.2	1.4	3.7	1.8	1.8	1.3
4시간 이상	0.5	0.2	0.4	1.2	1.7	0.9	1.2	1.1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2와 같다. 주중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61.7%에서 2018년 52.6%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주중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했다. 2010년 기준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7%,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1.9%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5.3%, ‘4시간 이상’ 8.0% 등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은 코호트에 따라 유사한 가운데 소폭 증가하였다.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기준 31.5%였으나, 이후 2018년에는 28.9%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10년 19.8%에서 2018년 23.0%로 소폭 증가했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이 하루에 친구와 노는 평균 시간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더 많았으며, 주중에 친구와 노는 시간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코호트 간에 유사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친구와 노는 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61.7	55.6	61.1	52.6	31.5	28.7	28.9	28.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4.5	26.1	24.1	23.2	15.5	15.7	13.6	16.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9.4	12.7	10.0	11.0	18.5	18.6	18.2	16.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7	3.5	3.6	5.3	14.7	15.3	14.1	14.6
4시간 이상	1.9	2.1	1.3	8.0	19.8	21.8	25.2	23.0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 TV/비디오 시청 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3과 같다. 주중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 23.6%에서 점차 늘어 2018년 70.9%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2016년 사이에는 23.6%~36.6%로 응답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가 2018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중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점 감소하였다. 2010년 주중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4.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10.7%였으나 2018년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6.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2.0%) 등으로 줄었다. 주말 TV/비디오 시청 시간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2010년 주말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7.4%였으나, 이후 점차 늘어 2018년 코호트에 서는 해당 응답이 48.6%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10년 28.7%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8년에는 4.4%로 나타났다. 두 응답 모두 특히 2016년과 2018년 사이 변동 폭이 컸다. 종합하면, TV/비디오 시청 시간은 전반적으로 주중에 비해 주말에 많았으며, 주중과 주말 모두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변동 폭은 특히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간 사용에 대한 응답을 연속형으로 수집했던 2010~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명목형으로 수집하였으므로, 2018년 코호트의 응답을 다른 코호트와 비교하여 해석할 때에는 측정 방식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3. 중학교 1학년의 평균 TV/비디오 시청 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23.6	30.4	36.6	70.9	7.4	13.3	17.1	48.6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5.5	34.6	38.6	19.2	15.6	17.6	19.7	23.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4.0	21.4	16.9	6.4	25.8	23.4	24.6	17.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7	9.4	5.6	2.0	22.5	22.9	21.0	6.4
4시간 이상	6.2	4.3	2.2	1.6	28.7	22.8	17.6	4.4

표 III-14.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코호트분석

단위: %

항목	주중				주말			
	2010	2013	2016	2018	2010	2013	2016	2018
1시간 미만	30.8	43.1	45.6	75.6	6.8	14.2	15.5	58.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6.4	35.1	35.6	13.7	22.6	26.7	21.8	15.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1.5	14.2	11.9	6.4	27.5	27.2	27.0	13.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7.1	5.2	4.2	2.2	22.0	17.3	18.3	6.0
4시간 이상	4.2	2.4	2.6	2.0	21.2	14.6	17.4	7.1

중학교 1학년의 주중과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14와 같다. 주중 컴퓨터 이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0년 30.8%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늘어 2018년에는 75.6%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2016년 사이에는 해당 응답 비율이 30.8%~45.6%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으나 2018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중 컴퓨터 이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이전 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주중 컴퓨터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36.4%,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1.5%였으나 2018년에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3.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6.4%) 등으로 감소하였다.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0년에는 6.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늘었으며, 특히 2016년과 2018년 사이 급증하여 2018년 58.2%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였다. 2010년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2.0%였으며,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21.2%였으나, 2018년에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

만’(6.0%), ‘4시간 이상’(7.1%) 등으로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컴퓨터 이용 시간은 전반적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더 많은 가운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주중과 주말 모두 컴퓨터 이용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16년과 2018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간 사용에 대한 응답을 연속형으로 수집했던 2010~2016년과 달리 2018년에는 명목형으로 수집하였으므로 해석 시 측정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이용 특성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을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5와 같다.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92.9%에서 2013년 94.9%, 2016년 97.1%로 점차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을 조사한 2018년에는 보유율이 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코호트에 대해서는 피쳐폰 등 일반 휴대전화를 모두 포함한 휴대전화 보유율을 측정한 것과 달리 2018년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유율을 측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2018년의 실제 휴대전화 보유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III-15.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

변수	2010	2013	2016	2018*
휴대전화 보유율	92.9	94.9	97.1	95.5

* 주: 2018년에는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스마트폰 보유율을 측정함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살펴보았다. 중학교 1학년의 가족과의 통화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6과 같다. 가족과의 통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

한다’는 응답은 2010년 57.6%에서 2016년 62.7%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57.6%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가족과의 통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6.6%에서 2016년 3.5%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5.6%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가족과의 통화 목적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코호트에 따라 유사한 가운데 2016년 코호트에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과의 통화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0.5	1.0	0.2	1.0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6	5.8	3.5	5.6
가끔 사용한다	35.4	36.2	33.7	35.8
자주 사용한다	57.6	57.1	62.7	57.6

중학교 1학년의 가족과의 문자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7과 같다. 가족과의 문자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6.1%에서 2018년 2.3%로 감소하였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10년 25.2%에서 2018년 13.4%로 감소하였다. 반면 가족과의 문자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27.9%에서 2013년 47.2%, 2016년 53.1%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39.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응답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가족과의 문자 목적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이전 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16년 코호트에서 다른 코호트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III-17.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가족과의 문자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6.1	2.4	1.3	2.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5.2	11.0	7.7	13.4
가끔 사용한다	40.8	39.5	37.9	44.8
자주 사용한다	27.9	47.2	53.1	39.5

중학교 1학년의 친구와의 통화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8과 같다. 친구와의 통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61.7%에서 2016년 65.0%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8년 53.8%로 감소하였다. 반면 친구와의 통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30.5%에서 2016년 28.8%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5.0%로 증가하였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10년 6.7%에서 2016년 5.3%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 8.8%로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친구와의 통화 목적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하였다.

표 III-18.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친구와의 통화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	1.2	1.0	2.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7	4.7	5.3	8.8
가끔 사용한다	30.5	28.9	28.8	35.0
자주 사용한다	61.7	65.2	65.0	53.8

중학교 1학년의 친구와의 문자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19와 같다. 친구와의 문자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78.0%에서 2018년 72.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17.9%에서 2018년 21.8%로 소폭 증가하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10년 2.7%에서 2018년 4.2%로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친구와의 문자 목적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전체적으로 ‘자주 사용한다’가 많은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친구와의 문자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3	1.7	1.2	1.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7	3.4	2.8	4.2
가끔 사용한다	17.9	26.6	21.4	21.8
자주 사용한다	78.0	68.3	74.6	72.5

중학교 1학년의 게임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20과 같다. 게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24.0%에서 2013년 46.9%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후 2016년 44.2%, 2018년 40.3%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32.3%에서 2013년 14.7%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 16.7%, 2018년 18.6%로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게임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빈도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게임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4.4	8.7	11.1	10.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2.3	14.7	16.7	18.6
가끔 사용한다	29.3	29.7	28.0	30.8
자주 사용한다	24.0	46.9	44.2	40.3

중학교 1학년의 사진 촬영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21과 같다. 사진 촬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25.2%에서 2013년 35.8%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0.2%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29.1%에서 2013년 19.6%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22.2%로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사진 촬영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하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사진 촬영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9.6	7.5	7.9	8.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9.1	19.6	18.4	22.2
가끔 사용한다	36.2	37.1	37.9	39.4
자주 사용한다	25.2	35.8	35.8	30.2

중학교 1학년의 동영상 시청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I-22와 같다. 동영상 시청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5.8%에서 2013년 30.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로도 상승세를 유지해 2018년 64.8%에 이르렀다.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2010년 36.3%에서 2013년 11.2%, 2018년 4.8%로 대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동영상 시청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22.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동영상 시청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6.3	11.2	7.2	4.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1.6	22.7	14.6	7.9
가끔 사용한다	16.3	35.7	30.8	22.7
자주 사용한다	5.8	30.4	47.4	64.8

중학교 1학년의 음악 감상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Ⅲ-23과 같다. 음악 감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30.2%에서 2013년 59.8%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 61.3%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25.3%에서 2013년 6.3%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8년 4.0%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종합하면, 중학교 1학년의 음악 감상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

표 Ⅲ-23.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빈도: 음악 감상

항목	2010	2013	2016	20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5.3	6.3	4.7	4.0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1.3	6.8	7.7	7.5
가끔 사용한다	23.3	27.1	28.4	27.2
자주 사용한다	30.2	59.8	59.2	61.3

3. 요약 및 시사점

중학교 1학년 패널 발달 추이 분석 및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분석 결과, 성장·발달에 따른 차이보다는 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2010년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는 20세가 될 때까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코호트 분석에서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교적응, 공동체 의식 등에서도 성장·발달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자아존중감 및 지역사회인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호트에 따른 차이는 시간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학원/과외 시간이 특히 주말 시간을 중심으로 더 줄어들었으며, 개인적인 공부시간 및 독서시간 역시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와 노는 시간은 특히 주중 시간을 중심으로 최근 코호트에서 더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원/과외/공부/독서시간이 줄어들고 주중과 주말의 여가시간이 더 늘어난 것은, 청소년 응답자가 보고한 주관적 건강 및 삶의 질이 최근 코호트에서 더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처럼 최근 코호트에서 학원/과외/공부/독서시간이 줄어들고 함께 TV/비디오 시청 시간 및 컴퓨터 이용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중1 코호트에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청소년이 TV/비디오나 컴퓨터 이외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뉴미디어의 출현 및 확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 빈도를 코호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동영상 및 음악을 제외한 여타 이용 목적(친구 및 가족과의 연락, 사진 촬영, 게임)을 위한 휴대폰 이용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기반 뉴미디어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등에 최근 청소년이 많은 여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KCYPS 1기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2018년 KCYPS 2기에서 중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과반(54.4%)을 차지하였고, 주말에는 4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도 22.2%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코호트에서 중학교 1학년의 여가 시간 활용 및 미디어 이용 양상이 스마트폰 및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및 과몰입이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성인물 경험과 연관이 되는 등(남영옥·송연주, 2016; 박지현·조재희, 2020)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는 적절한 심의와 규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또한, 당사자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뉴미디어 활용 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임혜원, 2021. 8. 26.).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21. 11. 24. a).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초 소양을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보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2021. 11. 24. a). 또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 개발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하나의 요소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21. 11. 24. b).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청소년에게 뉴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

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개발된 교육내용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뉴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 제4장 신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인식

- 1. 청년특별대책
-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개요
- 3.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은 2021년 8월 26일에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정책은 최근 본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앞서 본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동향 분석 결과에서도 실제로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세대가 지난 정부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은 최근 도입된 청년대상 정책에 대하여 정책수요자이자 당사자인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해당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청년특별대책

2021년 8월 26일에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되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의 정식명칭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이다. “8.26 청년특별대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 장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효정 부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과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5대 분야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그림 IV-1).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왔으며, 2020년 3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을 확대해왔다(관계부처 합동, 2021).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고용 불안정이 청년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청년자립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당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관계부처 합동, 2021).

정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이 “청년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경험담과 분야별 정책의견,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표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중 주요 신규 정책 10가지를 뽑아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 여부와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의 정책 체감도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수요자들에게 정책 실효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10가지 정책과 청년들에게 제공한 정책 정보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청년특별대책 목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

3대 방향 5대 분야



그림 IV-1. 청년특별대책 추진 체계도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표 IV-1. 분야별 주요 청년정책 10개 핵심내용

정책명	핵심내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기업들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에 연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8~23세 고졸 청년 2만 명을 포함하여) 총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청년 구직자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 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2)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3) 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1) 예비 창업자 400명에게 각 1천만 원씩, 업력 1년 미만 초기창업자 100명에게 각 2천만 원씩 사업화 자금, 2) 선배 창업가 멘토링, 3) 세무·회계 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기준중위 100% 이하의 연소득 600~2,400만 원 이하 19~34세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15~39세)은 연소득 기준이 면제되며 본인 납입액의 3배(최대 30만 원)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총 급여 3,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연 납입한도 600만 원) 시중금리에 더하여 1년에 2%, 2년에 4%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이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소득 기준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주 1회, 월 4회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간 지원합니다. 전국의 자립준비 청년 등 1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책명	핵심내용						
청년의제 공론화장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이 직접 해법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선정된 의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을 1년에 두 번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자가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이 추진됩니다. 3기 신도시 17.3만호 등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대책 사업지구 83.6만호의 10~2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익공유형: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2. 지분적립형: 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0~30년 중 선택하여 나누어 부담 3. 토지임대부: 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고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40년 동안 적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월세 내듯이 매월 갚아나 가도록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이용 시 시중 월세와 비슷한 부담으로 내 집 장만이 가능해집니다.”						
	구 분	보급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 제한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한도	3억 원 → 3.6억 원 (7.1일부터)					5억 원
	LTV·DTI	LTV 70% (주택 가격의 70%) DTI 60% (개인 연소득의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7월 기준)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3.34~3.92% (은행별 상이)
	인터넷 금리	2.60	2.80	2.85	2.90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해당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공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개요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총 1,000명으로, 조사대상은 2021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참고하여 전문조사업체의 온라인 패널 중 연령대, 성, 지역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그러나 할당표집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표집 방법이 아니므로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 분포는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가 각각 35.4%, 34.1%, 30.5%이며, 성별 분포는 여성 47.8%, 남성 52.2%이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54.8%, 광역시 18.8%, 그 외 지역이 26.4%이다. 학력(재학·휴학 포함)은 대학교가 68.3%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이 13.3%, 고졸 이하가 12.5%였으며, 대학원이 5.9%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지위는 '일하지 않음'이 36.3%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4.6%로 가장 낮았다. 상용직은 34.0%, 임시직·계약직·일용직은 25.1%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없음'이 36.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도 각각 12.6%, 12.8%를 차지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3.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9.2%였으며, '400만(원) 이상'이 6.1%로 가장 낮았다. 주택소유형태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을 포함하는 응답인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응답이 50.7%로 가장 높았고, 전세가 21.2%, 보증금 있는 월세가 20.2%였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비율(%)
전체 (사례 수=1,000)		100.0
연령	만 19~24세	35.4
	만 25~29세	34.1
	만 30~34세	30.5
성별	여성	47.8
	남성	52.2
거주지역	수도권	54.8
	광역시	18.8
	그 외	26.4
학력 (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12.5
	전문대학	13.3
	대학교	68.3
	대학원	5.9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36.3
	상용직	34.0
	임시직·계약직·일용직	25.1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6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36.3
	100만 미만	12.6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2.8
	200만 이상 300만 미만	23.0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2
주택소유형태	400만 이상	6.1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50.7
	전세(월세 없음)	21.2
	보증금 있는 월세	20.2
	보증금 없는 월세	2.2
	무상	2.0
	잘 모르겠음	3.7

3.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2021년 8월 26일에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청년정책 중 10개를 선정하여 각 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에 대하여 청년들의 사전인지여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이용 의향 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전인지여부는 ‘(정책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정책명)이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매우 도움이 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응답을 통합하여 청년에게 도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아니오’로, ‘약간 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을 통합하여 도움 여부에 긍정적인 ‘예’로 재가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향 정도의 경우에도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정책명)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④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통합하여 이용 의향 여부에 부정적인 ‘아니오’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통합하여 이용 의향 여부에 긍정적인 ‘예’로 재가공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별로 사전인지여부 비율,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시각화하여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를 통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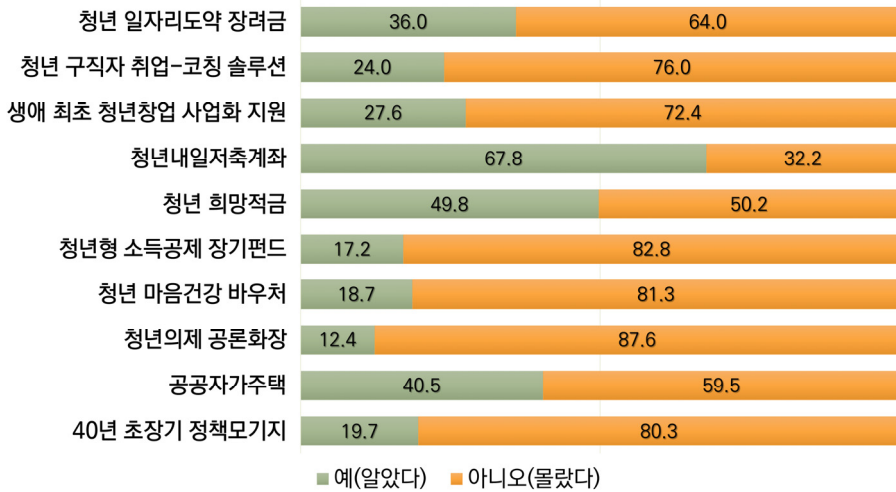


그림 IV-2. 정책별 사전 인지 여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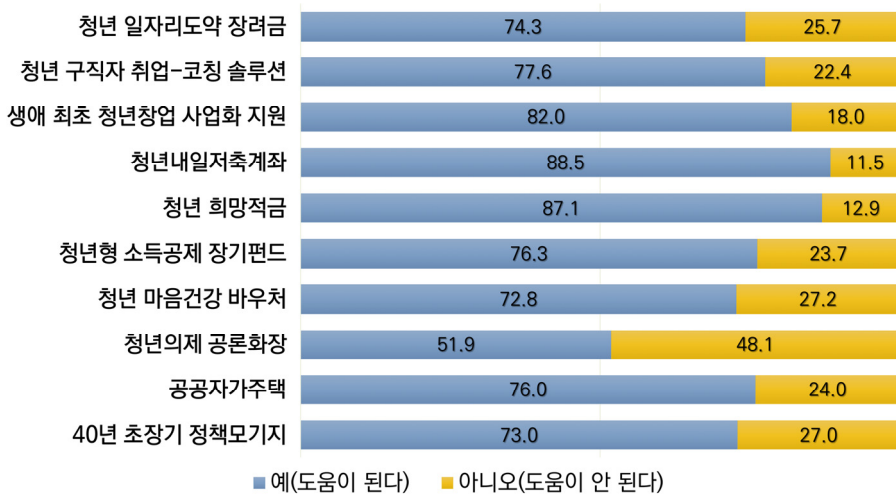


그림 IV-3. 정책별 청년에게 도움 여부 평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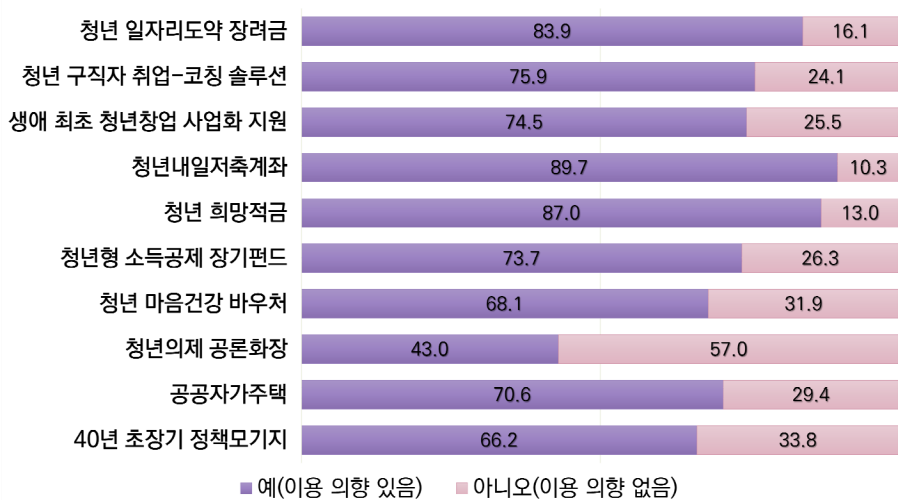


그림 IV-4. 정책별 이용 의향 여부(단위: %)

분석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 전체의 결과와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조사대상자 특성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학력, 직업지위, 근로소득, 주택소유형태의 7개 특성이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된 7개 특성 외, ‘지난 한 달간 주로 한 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본문에 서술하였다.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전반적으로 사전인지여부는 ‘아니오’가 64.0%로 우세하여 아직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보다 모르고 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게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74.3%, 이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83.9%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전인지여부의 경우 연령이 높아 질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학원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정책 인지도(54.2%)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거 노동시장 경험이 있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가까이 앞둔 청년이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직업지위에 따른 응답 결과도 흥미로웠는데, 현재 ‘일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사전 인지여부(29.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근접성과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책 인지도(63.0%)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이 직접 투입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해당 정책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정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낮은 근로소득의 청년들이 정책 인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일견 반대되는 결과일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과 청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점, 개인의 경력에 대한 관심과 개발 수준이 근로소득과 일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일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청년에게 도움 여부와 이용 의향에서는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눈에 띄는 응답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간 주로 한 일에 따른 응답 패턴을 살펴본 결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에 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에 대한 인지도 (28.2%)는 다소 낮은 반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90.4%)한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36.0	64.0	74.3	25.7	83.9	16.1
연령	만 19~24세	29.1	70.9	76.3	23.7	84.7	15.3
	만 25~29세	34.3	65.7	72.1	27.9	82.7	17.3
	만 30~34세	45.9	54.1	74.4	25.6	84.3	15.7
성별	여성	33.9	66.1	78.5	21.5	87.7	12.3
	남성	37.9	62.1	70.5	29.5	80.5	19.5
거주지역	수도권	37.2	62.8	73.2	26.8	82.3	17.7
	광역시	35.1	64.9	71.8	28.2	81.9	18.1
	그 외	34.1	65.9	78.4	21.6	88.6	11.4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33.6	66.4	76.8	23.2	80.8	19.2
	전문대학	33.8	66.2	73.7	26.3	88.0	12.0
	대학교	35.3	64.7	73.9	26.1	83.9	16.1
	대학원	54.2	45.8	74.6	25.4	81.4	18.6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29.5	70.5	74.9	25.1	85.4	14.6
	상용직	40.3	59.7	72.9	27.1	81.5	18.5
	임시직·계약직·일용직	34.7	65.3	75.3	24.7	85.7	14.3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63.0	37.0	73.9	26.1	80.4	19.6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29.5	70.5	74.9	25.1	85.4	14.6
	100만 미만	30.2	69.8	73.0	27.0	86.5	13.5
	100만 이상 200만 미만	34.4	65.6	74.2	25.8	78.9	21.1
	200만 이상 300만 미만	42.2	57.8	74.3	25.7	83.5	16.5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2.4	57.6	75.0	25.0	83.7	16.3
	400만 이상	57.4	42.6	72.1	27.9	82.0	18.0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38.3	61.7	71.8	28.2	82.2	17.8
	전세(월세 없음)	30.2	69.8	77.4	22.6	82.5	17.5
	보증금 있는 월세	35.1	64.9	75.7	24.3	87.6	12.4
	보증금 없는 월세	36.4	63.6	81.8	18.2	86.4	13.6
	무상	40.0	60.0	75.0	25.0	95.0	5.0
	잘 모르겠음	40.5	59.5	78.4	21.6	86.5	13.5

2)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을 표 IV-4에 제시하였다. 사전인지여부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76.0%가 해당 정책을 몰랐다고 응답하여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이 비교적 아직 많은 청년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년에게 도움 여부와 이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각각 77.6%, 75.9%로 청년들이 해당 정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고졸 이하인 조사대상자는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68.0%)이 전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학력의 조사대상자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7.8%)이 전체에 비해 다소 낮았다. 직업지위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45.7%)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7.4%)과 해당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7.4%)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앞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책과도 유사한 응답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39.3%)가 전체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간 주로 한 일에 따른 응답 패턴을 살펴본 결과, 청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학교에 다닌다고 응답한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정책에 대한 인지도(18.1%)가 다소 낮았다. 반면에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84.7%)과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87.6%)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체에 비해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67.3%)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0.0%)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4.0	76.0	77.6	22.4	75.9	24.1
연령	만 19~24세	21.2	78.8	78.8	21.2	79.4	20.6
	만 25~29세	22.6	77.4	75.1	24.9	73.3	26.7
	만 30~34세	28.9	71.1	79.0	21.0	74.8	25.2
성별	여성	23.2	76.8	82.4	17.6	78.9	21.1
	남성	24.7	75.3	73.2	26.8	73.2	26.8
거주지역	수도권	24.6	75.4	77.2	22.8	74.5	25.5
	광역시	24.5	75.5	79.8	20.2	79.8	20.2
	그 외	22.3	77.7	76.9	23.1	76.1	23.9
학력 (사학·유학 포함)	고졸 이하	23.2	76.8	68.0	32.0	70.4	29.6
	전문대학	23.3	76.7	75.9	24.1	74.4	25.6
	대학교	24.0	76.0	79.4	20.6	77.9	22.1
	대학원	27.1	72.9	81.4	18.6	67.8	32.2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19.8	80.2	78.5	21.5	77.7	22.3
	상용직	27.4	72.6	77.6	22.4	73.5	26.5
	임시직·계약직·일용직	21.5	78.5	78.1	21.9	78.1	21.9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5.7	54.3	67.4	32.6	67.4	32.6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19.8	80.2	78.5	21.5	77.7	22.3
	100만 미만	19.0	81.0	77.8	22.2	80.2	19.8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5.0	75.0	75.8	24.2	75.8	24.2
	200만 이상 300만 미만	27.8	72.2	78.3	21.7	72.6	27.4
	300만 이상 400만 미만	26.1	73.9	71.7	28.3	71.7	28.3
	400만 이상	39.3	60.7	82.0	18.0	75.4	24.6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26.4	73.6	77.9	22.1	76.7	23.3
	전세(월세 없음)	20.3	79.7	74.5	25.5	71.2	28.8
	보증금 있는 월세	21.8	78.2	78.2	21.8	77.2	22.8
	보증금 없는 월세	27.3	72.7	77.3	22.7	72.7	27.3
	무상	30.0	70.0	85.0	15.0	80.0	20.0
	잘 모르겠음	18.9	81.1	83.8	16.2	83.8	16.2

3)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72.4%의 조사대상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에게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 82.0%의 조사대상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의향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74.5%의 청년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만 30~34세 응답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33.8%)이 다소 높았다. 성별의 경우, 사전인지여부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청년에게 도움 여부에 대해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88.7%)이 남성(75.9%)에 비해 높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21.6%)와 대학원(22.0%) 학력의 청년이 전체에 비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비율이 약간 낮았다. 이는 고졸 이하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직업지위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책 사전인지도(39.1%)가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정책의 직접 대상인 청년 창업자들의 직업지위가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71.7%)은 전체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전달체계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 집단인 ‘300만 이상 400만 미만’과 ‘400만 이상’ 조사대상자의 사전인지도(각각 35.9%, 39.3%)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 의향(각각 84.8%, 80.3%)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5.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7.6	72.4	82.0	18.0	74.5	25.5
연령	만 19~24세	25.1	74.9	81.9	18.1	74.0	26.0
	만 25~29세	24.6	75.4	82.4	17.6	75.1	24.9
	만 30~34세	33.8	66.2	81.6	18.4	74.4	25.6
성별	여성	25.9	74.1	88.7	11.3	77.4	22.6
	남성	29.1	70.9	75.9	24.1	71.8	28.2
거주지역	수도권	27.0	73.0	81.2	18.8	73.4	26.6
	광역시	29.3	70.7	83.0	17.0	76.1	23.9
	그 외	27.7	72.3	83.0	17.0	75.8	24.2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21.6	78.4	79.2	20.8	73.6	26.4
	전문대학	27.8	72.2	84.2	15.8	76.7	23.3
	대학교	29.1	70.9	81.4	18.6	73.2	26.8
	대학원	22.0	78.0	89.8	10.2	86.4	13.6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24.5	75.5	79.3	20.7	68.6	31.4
	상용직	32.1	67.9	83.5	16.5	78.5	21.5
	임시직·계약직·일용직	23.9	76.1	85.7	14.3	78.5	21.5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9.1	60.9	71.7	28.3	69.6	30.4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24.5	75.5	79.3	20.7	68.6	31.4
	100만 미만	24.6	75.4	85.7	14.3	79.4	20.6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1.9	78.1	85.2	14.8	72.7	27.3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9	69.1	83.9	16.1	76.5	23.5
	300만 이상 400만 미만	35.9	64.1	82.6	17.4	84.8	15.2
	400만 이상	39.3	60.7	75.4	24.6	80.3	19.7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30.6	69.4	80.5	19.5	73.2	26.8
	전세(월세 없음)	27.4	72.6	81.1	18.9	71.7	28.3
	보증금 있는 월세	21.8	78.2	85.6	14.4	78.7	21.3
	보증금 없는 월세	18.2	81.8	81.8	18.2	86.4	13.6
	무상	35.0	65.0	95.0	5.0	80.0	20.0
	잘 모르겠음	21.6	78.4	81.1	18.9	75.7	24.3

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67.8%의 조사대상자가 ‘예’라고 응답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88.5%가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89.7%가 자격조건이 된다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청년들이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별 응답 결과 분석에서는 청년에게 도움 여부와 정책 이용 의향에 비해 사전인지여부에서 특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직업지위의 경우,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사전인지도(59.2%)가 전체에 비해 낮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근로소득에 따른 응답 패턴도 흥미로웠는데, 직업지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사전인지도(59.2%)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 200만 원 이상의 청년들의 사전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만 이상 300만 미만’ 76.1%, ‘300만 이상 400만 미만’ 75.0%, ‘400만 이상’ 77.0%).

표 IV-6.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67.8	32.2	88.5	11.5	89.7	10.3
연령	만 19~24세	59.9	40.1	90.1	9.9	92.5	7.5
	만 25~29세	71.6	28.4	87.1	12.9	87.2	12.8
	만 30~34세	72.8	27.2	88.2	11.8	89.7	10.3
성별	여성	68.4	31.6	91.2	8.8	92.5	7.5
	남성	67.2	32.8	86.0	14.0	87.2	12.8
거주지역	수도권	70.4	29.6	88.1	11.9	89.8	10.2
	광역시	62.2	37.8	87.2	12.8	84.0	16.0
	그 외	66.3	33.7	90.2	9.8	93.6	6.4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54.4	45.6	89.6	10.4	85.6	14.4
	전문대학	61.7	38.3	85.0	15.0	87.2	12.8
	대학교	71.2	28.8	88.7	11.3	90.9	9.1
	대학원	71.2	28.8	91.5	8.5	89.8	10.2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59.2	40.8	88.7	11.3	88.7	11.3
	상용직	73.2	26.8	87.6	12.4	90.3	9.7
	임시직·계약직·일용직	71.7	28.3	90.0	10.0	92.0	8.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73.9	26.1	84.8	15.2	80.4	19.6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59.2	40.8	88.7	11.3	88.7	11.3
	100만 미만	71.4	28.6	90.5	9.5	88.1	11.9
	100만 이상 200만 미만	64.1	35.9	89.8	10.2	94.5	5.5
	200만 이상 300만 미만	76.1	23.9	78.8	12.2	90.4	9.6
	300만 이상 400만 미만	75.0	25.0	87.0	13.0	90.2	9.8
	400만 이상	77.0	23.0	85.2	14.8	85.2	14.8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65.7	34.3	87.2	12.8	89.5	10.5
	전세(월세 없음)	72.2	27.8	87.7	12.3	88.7	11.3
	보증금 있는 월세	69.8	30.2	93.6	6.4	92.6	7.4
	보증금 없는 월세	72.7	27.3	86.4	13.6	86.4	13.6
	무상	85.0	15.0	90.0	10.0	90.0	10.0
	잘 모르겠음	48.6	51.4	83.8	16.2	83.8	16.2

5) 청년 희망적금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7과 같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9.8%가 ‘청년 희망적금’ 정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년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인지도라고 할 수 있다.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87.1%, 자격이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또한 8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응답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조사대상자의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도(40.0%) 및 이용 의향(81.6%)이 전체에 비해 다소 낮은 점이 눈에 띄었다. 직업지위에 따라서는 일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사전인지도(41.9%)는 비교적 낮고, 상용직(56.2%)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63.0%)의 사전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높은 사전인지도에 비해 이용 의향(78.3%)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청년희망 적금’ 정책의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의 조사대상자들보다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 넘는 조사대상자들이 ‘청년 희망적금’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청년 희망적금'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49.8	50.2	87.1	12.9	87.0	13.0
연령	만 19~24세	48.9	51.1	85.9	14.1	86.4	13.6
	만 25~29세	46.6	53.4	87.7	12.3	86.2	13.8
	만 30~34세	54.4	45.6	87.9	12.1	88.5	11.5
성별	여성	48.1	51.9	90.6	9.4	91.8	8.2
	남성	51.3	48.7	83.9	16.1	82.6	17.4
거주지역	수도권	50.0	50.0	86.7	13.3	88.1	11.9
	광역시	52.1	47.9	85.1	14.9	81.4	18.6
	그 외	47.7	52.3	89.4	10.6	88.6	11.4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40.0	60.0	83.2	16.8	81.6	18.4
	전문대학	47.4	52.6	85.7	14.3	87.2	12.8
	대학교	52.1	47.9	87.7	12.2	87.8	12.2
	대학원	49.2	50.8	89.8	10.2	88.1	11.9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41.9	58.1	87.3	12.7	87.1	12.9
	상용직	56.2	43.8	86.8	13.2	87.1	12.9
	임시직·계약직·일용직	50.2	49.8	88.4	11.6	88.4	11.6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63.0	37.0	80.4	19.6	78.3	21.7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41.9	58.1	87.3	12.7	87.1	12.9
	100만 미만	51.6	48.4	85.7	14.3	90.5	9.5
	100만 이상 200만 미만	50.8	49.2	86.7	13.3	85.9	14.1
	200만 이상 300만 미만	53.0	47.0	88.3	11.7	87.0	13.0
	300만 이상 400만 미만	57.6	42.4	85.9	14.1	85.9	14.1
	400만 이상	67.2	32.8	86.9	13.1	83.6	16.4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49.5	50.5	88.2	11.8	86.2	13.8
	전세(월세 없음)	51.9	48.1	87.3	12.7	87.3	12.7
	보증금 있는 월세	48.5	51.5	86.6	13.4	89.6	10.4
	보증금 없는 월세	36.4	63.6	81.8	18.2	86.4	13.6
	무상	60.0	40.0	80.0	20.0	95.0	5.0
	잘 모르겠음	51.4	48.6	81.1	18.9	78.4	21.6

6)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82.8%의 조사대상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 자격이 된다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높게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81.4%)이 남성(71.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과, 고졸 이하 청년이 해당 정책이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67.2%)과 자격이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8.0%) 전체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지위의 경우,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정책에 대하여 상용직(22.4%)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30.4%)의 사전인지여부가 전체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나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상당히 낮게 나타나 이전 정책들에서의 응답 패턴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편, 근로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청년보다 200만 원 이상인 청년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높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에 비해 사전인지도(31.1%) 및 청년에게 도움 여부(85.2%)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취약·저소득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사전 인지도는 높으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다소 낮거나 전체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그 수혜 범위에 있어 비교적 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7.2	82.8	76.3	23.7	73.7	26.3
연령	만 19~24세	13.8	86.2	77.4	22.6	73.4	26.6
	만 25~29세	17.0	83.0	76.0	24.0	73.6	26.4
	만 30~34세	21.3	78.7	75.4	24.6	74.1	25.9
성별	여성	12.3	87.7	81.4	18.6	77.4	22.6
	남성	21.6	78.4	71.6	28.4	70.3	29.7
거주지역	수도권	18.1	81.9	76.5	23.5	74.3	25.7
	광역시	17.6	82.4	75.0	25.0	72.9	27.1
	그 외	15.2	84.8	76.9	23.1	73.1	26.9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13.6	86.4	67.2	32.8	68.0	32.0
	전문대학	18.0	82.0	72.2	27.8	69.2	30.8
	대학교	17.4	82.6	78.5	21.5	75.5	24.5
	대학원	20.3	79.7	79.7	20.3	74.6	25.4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12.4	87.6	75.8	24.2	72.7	27.3
	상용직	22.4	77.6	77.1	22.9	76.2	23.8
	임시직·계약직·일용직	14.7	85.3	77.7	22.3	75.7	24.3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0.4	69.6	67.4	32.6	52.2	47.8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12.4	87.6	75.8	24.2	72.7	27.3
	100만 미만	14.3	85.7	74.6	25.4	73.0	27.0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6.4	83.6	72.7	27.3	70.3	29.7
	200만 이상 300만 미만	20.0	80.0	76.5	23.5	75.2	24.8
	300만 이상 400만 미만	25.0	75.0	79.3	20.7	77.2	22.8
	400만 이상	31.1	68.9	85.2	14.8	77.0	23.0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15.8	84.2	78.5	21.5	74.6	25.4
	전세(월세 없음)	19.8	80.2	72.6	27.4	71.7	28.3
	보증금 있는 월세	17.3	82.7	78.2	21.8	74.8	25.2
	보증금 없는 월세	22.7	77.3	77.3	22.7	77.3	22.7
	무상	20.0	80.0	70.0	30.0	75.0	25.0
	잘 모르겠음	16.2	83.8	59.5	40.5	64.9	35.1

7)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81.3%의 조사대상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에게 도움 여부 및 이용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각각 72.8%, 68.1%로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정책들에 비해, 특히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책 사전인지도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남성(각각 65.5%, 62.1%)보다 여성(각각 80.8%, 74.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지원 정책에 있어 여성의 수요가 남성보다 많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직업지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에 비해 사전인지도(32.6%)는 높았고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63.0%)과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0.9%)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사전인지도(31.1%)가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에게 도움 여부와 이용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V-9.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8.7	81.3	72.8	27.2	68.1	31.9
연령	만 19~24세	18.6	81.4	74.0	26.0	67.8	32.2
	만 25~29세	15.2	84.8	71.8	28.2	66.6	33.4
	만 30~34세	22.6	77.4	72.5	27.5	70.2	29.8
성별	여성	16.3	83.7	80.8	19.2	74.7	25.3
	남성	20.9	79.1	65.5	34.5	62.1	37.9
거주지역	수도권	19.2	80.8	71.9	28.1	67.9	32.1
	광역시	18.1	81.9	71.3	28.7	68.6	31.4
	그 외	18.2	81.8	75.8	24.2	68.2	31.8
학력 (사학·유학 포함)	고졸 이하	15.2	84.8	68.0	32.0	64.0	36.0
	전문대학	15.0	85.0	69.2	30.8	64.7	35.3
	대학교	19.8	80.2	73.9	26.1	69.5	30.5
	대학원	22.0	78.0	78.0	22.0	67.8	32.2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18.2	81.8	76.3	23.7	68.6	31.4
	상용직	18.2	81.8	69.4	30.6	65.6	34.4
	임시직·계약직·일용직	17.5	82.5	74.1	25.9	72.1	27.9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2.6	67.4	63.0	37.0	60.9	39.1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18.2	81.8	76.3	23.7	68.6	31.4
	100만 미만	19.0	81.0	72.2	27.8	70.6	29.4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9.5	80.5	74.2	25.8	66.4	33.6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7.4	82.6	69.1	30.9	70.0	30.0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4.1	85.9	70.7	29.3	62.0	38.0
	400만 이상	31.1	68.9	67.2	32.8	65.6	34.4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19.3	80.7	73.0	27.0	65.5	34.5
	전세(월세 없음)	19.3	80.7	69.8	30.2	72.6	27.4
	보증금 있는 월세	16.3	83.7	74.8	25.2	69.8	30.2
	보증금 없는 월세	9.1	90.9	68.2	31.8	54.5	45.5
	무상	20.0	80.0	80.0	20.0	85.0	15.0
	잘 모르겠음	24.3	75.7	75.7	24.3	67.6	32.4

8) 청년의제 공론화장

‘청년의제 공론화장’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를 표 IV-10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87.6%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51.9%로 타 정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용 의향의 경우도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로 과반을 넘어 ‘청년의제 공론화장’ 정책은 이번 조사에서 살펴본 청년대상 10개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일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고학력, 고소득 일수록 ‘청년의제 공론화장’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와 이용 의향이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는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44.8%)이 전체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대학원 학력의 응답자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18.6%)와 이용 의향(50.8%)이 전체에 비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도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24.6%)와 이용 의향(50.8%)이 전체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직업지위에서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정책 사전인지도(37.0%)가 전체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45.7%)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응답 비교에서는 만 25~29세 청년들이 해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46.3%)이 비교적 낮았고,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이용할 의향(37.1%)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10. '청년의제 공론화장'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2.4	87.6	51.9	48.1	43.0	57.0
연령	만 19~24세	13.3	86.7	56.8	43.2	41.8	58.2
	만 25~29세	8.8	91.2	46.3	53.7	42.2	57.8
	만 30~34세	15.4	84.6	52.5	47.5	45.2	54.8
성별	여성	8.6	91.4	55.4	44.6	41.2	58.8
	남성	15.9	84.1	48.7	51.3	44.6	55.4
거주지역	수도권	12.6	87.4	49.8	50.2	41.8	58.2
	광역시	13.3	86.7	54.8	45.2	43.1	56.9
	그 외	11.4	88.6	54.2	45.8	45.5	54.5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9.6	90.4	44.8	55.2	42.4	57.6
	전문대학	15.8	84.2	48.9	51.1	40.6	59.4
	대학교	11.7	88.3	53.9	46.1	42.9	57.1
	대학원	18.6	81.4	50.8	49.2	50.8	49.2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9.4	90.6	52.1	47.9	39.9	60.1
	상용직	12.9	87.1	52.1	47.9	45.9	54.1
	임시직·계약직·일용직	11.6	88.4	52.6	47.4	43.4	56.6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7.0	63.0	45.7	54.3	43.5	56.5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9.4	90.6	52.1	47.9	39.9	60.1
	100만 미만	11.1	88.9	51.6	48.4	42.9	57.1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4.1	85.9	51.6	48.4	44.5	55.5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3.0	87.0	52.2	47.8	44.8	55.2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4.1	85.9	54.3	45.7	43.5	56.5
	400만 이상	24.6	75.4	47.5	52.5	50.8	49.2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13.8	86.2	51.9	48.1	45.4	54.6
	전세(월세 없음)	10.8	89.2	49.5	50.5	42.9	57.1
	보증금 있는 월세	8.9	91.1	49.0	51.0	37.1	62.9
	보증금 없는 월세	9.1	90.9	68.2	31.8	50.0	50.0
	무상	25.0	75.0	60.0	40.0	55.0	45.0
	잘 모르겠음	16.2	83.8	67.6	32.4	32.4	67.6

9) 공공자가주택

‘공공자가주택’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40.5%의 응답자가 사전에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공공자가주택’ 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0%, 자격이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6%로 나타나 ‘공공자가주택’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 결과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의 68.2%가 ‘공공자가주택’ 정책이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체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직업지위의 경우에는 앞선 정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해당 정책에 대하여 사전인지도(52.2%)는 높았으나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65.2%)이나 자격이 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56.5%)은 전체 응답비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소 흥미로운 응답 패턴이 발견되었다. ‘공공자가주택’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사실상 근로소득이 중간 수준인 응답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정책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소득이 낮거나 높아서 ‘공공자가주택’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응답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자격 조건이 되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79.7%)이 전체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반면에 근로 소득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거나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67.4%, 67.2%)이나 자격조건이 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각

각 65.2%, 60.7%)이 모두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응답 패턴도 주목할 만하다. 사전인지여부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인 응답자(예: 자가, 전세 등)가 불안정한 주거 상황(예: 월세, 무상 등)에 놓인 응답자보다 ‘공공자가주택’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에 사는 청년들의 ‘공공자가주택’ 정책 사전인지도(45.4%)가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전인지도(25.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해당 정책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일수록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사는 응답자의 이용 의향(77.3%)이나, ‘무상’ 주택에 사는 응답자가 해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84.9%)은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공공자가주택'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40.5	59.5	76.0	24.0	70.6	29.4
연령	만 19~24세	43.8	56.2	74.8	25.2	71.5	28.5
	만 25~29세	37.2	62.8	70.2	29.8	72.4	27.6
	만 30~34세	40.3	59.7	73.8	26.2	67.5	32.5
성별	여성	39.1	60.9	79.9	20.1	74.3	25.7
	남성	41.8	58.2	68.2	31.8	67.2	32.8
거주지역	수도권	41.2	58.8	71.7	28.3	68.1	31.9
	광역시	38.3	61.7	75.5	24.5	70.7	29.3
	그 외	40.5	59.5	76.9	23.1	75.8	24.2
학력 (사학·유학 포함)	고졸 이하	36.0	64.0	71.2	28.8	69.6	30.4
	전문대학	41.4	58.6	80.5	19.5	76.7	23.3
	대학교	40.7	59.3	73.1	26.9	69.5	30.5
	대학원	45.8	54.2	72.9	27.1	71.2	28.8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41.9	58.1	73.8	26.2	70.5	29.5
	상용직	39.1	60.9	74.4	25.6	69.4	30.6
	임시직·계약직·일용직	38.2	61.8	74.5	25.5	74.9	25.1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2.2	47.8	65.2	34.8	56.5	43.5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41.9	58.1	73.8	26.2	70.5	29.5
	100만 미만	38.9	61.1	73.8	26.2	71.4	28.6
	100만 이상 200만 미만	39.1	60.9	78.1	21.9	79.7	20.3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7.8	62.2	75.7	24.3	70.0	30.0
	300만 이상 400만 미만	37.0	63.0	67.4	32.6	65.2	34.8
	400만 이상	54.1	45.9	67.2	32.8	60.7	39.3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45.4	54.6	73.6	26.4	69.2	30.8
	전세(월세 없음)	36.3	63.7	73.1	26.9	69.3	30.7
	보증금 있는 월세	35.1	64.9	74.3	25.7	73.8	26.2
	보증금 없는 월세	27.3	72.7	72.7	27.3	77.3	22.7
	무상	25.0	75.0	84.9	15.1	75.0	25.0
	잘 모르겠음	43.2	56.8	73.0	27.0	73.0	27.0

10)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12로 요약된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0.3%가 해당 정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정책의 사전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자격이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3.0%, 66.2%로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고학력, 고소득 청년의 사전인지도나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사전인지여부의 경우 만 30~34세 응답자(27.9%), 대학원 학력의 응답자(28.8%), 상용직 응답자(26.8%),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45.9%)가 전체에 비해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눈에 띄게 높았다.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이용 의향은 대학원 학력 응답자(각각 79.7%, 78.0%)와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각각 82.0%, 78.7%)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응답자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12.9%)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는 자격이 되면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60.0%)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응답을 살펴본 결과, 사전인지도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전세(월세 없음)’(74.1%)와 ‘보증금 없는 월세’(77.3%), ‘무상’(75.0%)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V-12.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정책 인지 여부 및 평가

(단위: %)

구 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9.7	80.3	73.0	27.0	66.2	33.8
연령	만 19~24세	15.5	84.5	74.0	26.0	62.4	37.6
	만 25~29세	16.7	83.3	73.9	26.1	68.6	31.4
	만 30~34세	27.9	72.1	70.8	29.2	67.9	32.1
성별	여성	15.3	84.7	77.6	22.4	70.9	29.1
	남성	23.8	76.2	68.8	31.2	61.9	38.1
거주지역	수도권	20.8	79.2	72.1	27.9	64.2	35.8
	광역시	18.6	81.4	70.7	29.3	68.6	31.4
	그 외	18.2	81.8	76.5	23.5	68.6	31.4
학력 (사학·휴학 포함)	고졸 이하	16.0	84.0	70.4	29.6	60.0	40.0
	전문대학	17.3	82.7	72.9	27.1	66.9	33.1
	대학교	20.1	79.9	72.9	27.1	66.2	33.8
	대학원	28.8	71.2	79.7	20.3	78.0	22.0
직업지위	일하지 않음	12.9	87.1	72.7	27.3	64.5	35.5
	상용직	26.8	73.2	74.1	25.9	69.7	30.3
	임시직·계약직·일용직	16.3	83.7	72.9	27.1	65.7	34.3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9.1	60.9	67.4	32.6	56.5	43.5
근로소득 (단위: 원)	없음	12.9	87.1	72.7	27.3	64.5	35.5
	100만 미만	15.9	84.1	73.8	26.2	66.7	33.3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3	79.7	73.4	26.6	66.4	33.6
	200만 이상 300만 미만	23.5	76.5	70.0	30.0	64.3	35.7
	300만 이상 400만 미만	23.9	76.1	73.9	26.1	68.5	31.5
	400만 이상	45.9	54.1	82.0	18.0	78.7	21.3
주택소유 형태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19.9	80.1	71.8	28.2	63.1	36.9
	전세(월세 없음)	21.2	78.8	75.9	24.1	74.1	25.9
	보증금 있는 월세	16.8	83.2	72.8	27.2	64.4	35.6
	보증금 없는 월세	22.7	77.3	72.7	27.3	77.3	22.7
	무상	40.0	60.0	70.0	30.0	75.0	25.0
	잘 모르겠음	10.8	89.2	75.7	24.3	62.2	37.8

11) 종합: 청년정책 선호도 순위

지금까지 살펴본 10개 정책 중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정책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아래 표 IV-13은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정책별 응답 비율의 결과는 1,000명의 조사대상자 중 해당 정책을 선호하는 정책으로 선택한 조사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3개의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응답 비율의 합은 100.0%를 초과한다. 분석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63.0%)와 ‘청년 희망적금’(55.9%)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38.6%)과 ‘공공자가주택’(31.5%)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선택 빈도를 보인 정책은 ‘청년의제 공론화장’(6.6%),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17.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청년정책 선호도 순위(3개 복수 응답)

순위	정책	응답 비율(%)
1	청년내일저축계좌	63.0
2	청년 희망적금	55.9
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38.6
4	공공자가주택	31.5
5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23.6
6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22.4
7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20.8
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0
9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17.6
10	청년의제 공론화장	6.6

4.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여부, 이용 의향 각각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 정책 상위 3개를 정리하면 아래 표 IV-14와 같다. 사전인지여부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공공 자가주택’ 순으로, 청년에게 도움 여부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순으로, 이용 의향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순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나 긍정적인 평가가 모두 가장 높은 점은 해당 정책들의 성공적인 안착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IV-14. 수요·인식 측면별 긍정 응답 순위 및 비율

순위	사전인지여부	청년에게 도움	이용 의향
1	청년내일저축계좌 (67.8%)	청년내일저축계좌 (88.5%)	청년내일저축계좌 (89.7%)
2	청년 희망적금 (49.8%)	청년 희망적금 (87.1%)	청년 희망적금 (87.0%)
3	공공자가주택 (40.5%)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82.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83.9%)

둘째, 청년들은 조사된 청년정책들에 대해 대체로 낮은 사전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다수 정책에 대하여 30% 이하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사된

정책들이 지난 8월에 신규 발표된 정책들이고 조사 시점이 11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자격이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들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 및 안착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해당 정책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본래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전달체계가 구축된다면 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상이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청년의제 공론화장이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하는 응답 비율이 70% 이하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전달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사전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처럼 청년들의 구직과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하여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보다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인지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자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월세’, ‘무상’ 등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자가’, ‘전세’ 등 주거가 비교적 안정적인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정책들의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적화된 정책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사전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다수의 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정책들에 대한 사전인지도가 높았다. 이러한 응답 패턴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연령이 일반적으로 비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 및 노동시장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고연령 집단이 정책 관심도 및 인지도가 높은 것을 하나의 이유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청년 희망적금’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과 사전인지도가 비례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이유는 높은 근로소득은 보통 높은 경력개발 수준을 의미하고, 높은 경력개발 수준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이나 자산형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책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다수의 청년정책들이 취약·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지도 역전 현상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전체 응답과 다소 상이한 응답 경향 패턴을 보여, 향후 이들 집단의 특성과 수요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청년들은 대부분 정책에 대해 상당히 높은 사전인지를 보인 반면, 청년에게 도움 여부와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은 경향이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물론 이들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 패턴에 대한 확정적 해석은 불가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청년들의 응답이 모든 정책에 대해 일관된 패턴(높은 인지도, 부정적 평가)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해당 집단의 청년들 중 다수는 노동시장에 일찍부

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로서, 이들의 폭넓은 사회 경험 및 노동 시장에 대한 경험이 청년 지원 정책들에 대한 높은 인지도의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특수 집단으로서 해당 정책들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정책들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스타트업의 유행과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증가 등으로 이들 집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경향성에 대한 분석과 진단 및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적 평가가 발견된 점도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점일 것이다.

○———— 제5장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 1.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개요
- 2. 코로나-19 전후
근로 현황의 변화
- 3. 시사점: 코로나-19가 청소년·
청년 근로 현황에 미친 영향

이 장은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종사상 지위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의 근로 현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만 15~34세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실시한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개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전인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만 15~34세의 청소년·청년 총 8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문조사업체의 온라인 패널 중 성, 지역, 연령대에 따라 할당표집하였다. 구체적인 할당 방식은 표 V-1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각 400명씩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고, 만 15~18세 12.5%, 만 19~24세 37.5%, 만 25~29세와 만 30~34세를 각 25.0%씩 표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를 50%, 광역시 거주자를

*이 장은 한신대학교 김수경 교수가 공동집필하였음.

30%, 그 외 지역 거주자를 20%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이 조사는 모집단의 수를 추정할 수 없고 표본들이 부재한 조사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비확률표집인 할당표집을 실시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V-1. 성별, 연령별, 지역별 조사대상자 수

단위: 명

	계	15~18세 ¹⁾		19~24세		25~29세		30~3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800	50	50	150	150	100	100	100	100
수도권	400	25	25	75	75	50	50	50	50
광역시	240	15	15	45	45	30	30	30	30
그 외	160	10	10	30	30	20	20	20	20

* 주: 1)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에 이전보다 완화된 워드코로나 방역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조사설계는 방역 정책 완화가 논의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조사 착수 시점은 워드코로나 방역 정책이 본격 실시된 11월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청소년·청년의 노동 현황에 미친 여파가 완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하였을 때 코로나-19가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 현황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시기라고 기대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연령인 만 15~34세는 청소년·청년층으로 중등 교육이나 고등 교육의 대상 연령을 포함된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 당시 학생으로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상황이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38.8%로 남성의 43.8%, 여성의 33.8%에 해당했다(표 V-2). 연령별로는 2020년 1월에 만 15~18세였던 청소년

년 응답자의 64.0%, 만 19~24세의 59.7%가 학생이었고, 만 25~29세의 23.5%, 만 30~34세의 10.0%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자 중 만 25~29세의 76.5%, 만 30~34세의 90.0%가 학생이 아님에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의 불안정한 취업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에 재학이나 휴학 중이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35.3%로 2020년 1월보다 3.5%p 감소하였다. 2020년 1월 당시 만 15~18세의 청소년이었던 응답자는 2021년 11월에 79.0%가 재학 또는 휴학 중이라고 응답하여 학생 비율이 2020년 1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현재 재·휴학 중인 경우가 감소하였다. 특히, 만 19~24세의 연령대 중 학생 비율은 2020년 1월에 비해 약 10%p 하락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모두 학생인 비율은 28.3%, 2020년 1월에는 학생이었으나 2021년 11월에는 아닌 경우는 10.5%, 2020년 1월에는 학생이 아니었으나 2021년 11월에는 학생인 비율은 7.0%이고,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모두 학생이 아닌 비율은 과반인 54.3%에 달했다.

표 V-2.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재학·휴학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 ¹⁾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2020년 1월 재학·휴학	38.8	43.8	33.8	64.0	59.7	23.5	10.0	40.3	37.5	36.9
2021년 11월 재학·휴학	35.3	41.0	29.5	79.0	50.0	18.0	8.5	34.5	37.1	34.4

* 주: 1)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2. 코로나-19 전후 근로 현황의 변화

이 절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2021년 11월 종사상 지위나 직종 등 근로 현황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전인 2020년 1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사상 지위

본 조사는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11월 조사 시점 당시 종사상 지위는 그림 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에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에 달하였다(2020년 1월에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구직 시도를 하였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1년 11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6%는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0.3%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상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하였고, 자영업자가 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2021년 11월 기준 종사상 지위는 표 V-3에 제시되어 있다.

2021년 11월에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59.3%)과 여성(58.0%)의 비율은 유사하였고, 상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11.5%)이 남성(9.0%)보다 조금 더 높았다. 남성(31.0%)은 여성(29.5%)보다 2021년 11월에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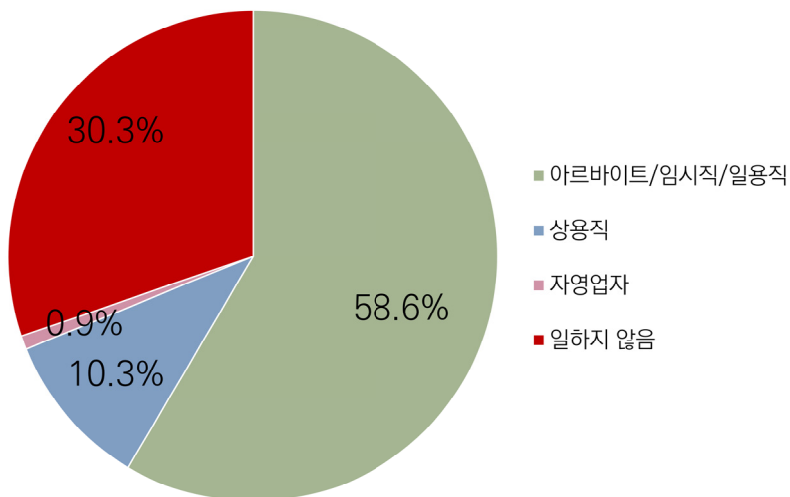


그림 V-1. 2021년 11월 종사상 지위

표 V-3. 2021년 11월 종사상 지위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58.6	59.3	58.0	61.0	50.3	62.5	66.0	61.3	56.3	55.6
상용직	10.3	9.0	11.5	1.0	10.7	16.5	8.0	10.3	10.8	9.4
자영업자 ³⁾	0.9	0.8	1.0	0.0	0.3	1.0	2.0	0.5	1.7	0.6
일하지 않음	30.3	31.0	29.5	38.0	38.7	20.0	24.0	28.0	31.3	34.4

* 주: 1)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총 800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3) 자영업자로 종사상 지위가 변한 사례 수가 매우 적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산하여 제시함

종사상 지위 변화는 연령대별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 1월에 만 15~18세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던 이들 중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경우는 대부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것(38.0%)으로 설명되었다. 만 19~24세 중 10.7%는 상용직이 되었으나 2021년 11월에 일하지 않는 비율이 38.7%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하는 이들이 많은 연령대인 만 25~29세에서 상용직 비율이 16.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일하지 않는 비율은 20.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만 30~34세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66.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였으며, 2021년 11월 조사 시점에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 61.3%, 광역시 56.3%, 그 외 지역 55.6%로 수도권에서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일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수도권 28.0%, 광역시 31.3%, 그 외 지역 34.4%로 수도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5.9%는 2021년 11월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전인 2020년 1월에 일하던 곳을 그만둔 사람의 79.2%는 2020년 1월 이후 구직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88.9%는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구직을 시도했을 때 느낀 어려운 점(복수 응답 허용) 1위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63.7%)이었고, 2위는 '사람을 적게 뽑음'(61.7%)이었다.

2) 종사 직종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 이전인 2020년 1월에 조사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

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직종 분포는 표 V-4와 같다. 종사상 지위의 특성상 2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당월에 일한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직종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만약 일한 시간도 동일하다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곳을 기준으로 직종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4. 조사대상자 2020년 1월 근무 직종 대분류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서빙·주방	20.6	19.5	21.8	38.0	23.7	15.5	12.5	18.0	24.2	21.9
매장관리	16.0	15.3	16.8	15.0	21.0	13.0	12.0	17.0	16.3	13.1
서비스	15.5	15.3	15.8	13.0	14.3	17.0	17.0	16.5	12.1	18.1
생산·기능	15.4	23.8	7.0	10.0	11.3	17.0	22.5	15.5	13.8	17.5
사무·회계	11.5	7.8	15.3	6.0	11.3	14.5	11.5	12.3	11.3	10.0
교육	10.4	7.5	13.3	7.0	8.0	12.5	13.5	9.8	10.0	12.5
기타	4.9	5.8	4.0	6.0	4.3	4.0	6.0	4.8	5.8	3.8
IT·디자인	3.1	3.0	3.3	3.0	3.3	4.5	1.5	3.8	3.8	0.6
상담·영업	2.6	2.3	3.0	2.0	2.7	2.0	3.5	2.5	2.9	2.5

* 주: 1)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총 800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응답자인 청소년·청년들이 2020년 1월에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20.6%)이었고, 매장관리(16.0%), 서비스(15.5%), 생산·기능직(1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빙·주방일은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다. 매장관리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업체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은 기타 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생산·기능직은 제조·가공이나 물류 관리 등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근무한 직종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생산·기능직이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서빙·주방일이 19.5%로 그 뒤를 이은 반면, 여성은 서빙·주방일이 21.8%로 가장 높고 매장관리가 16.8%로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만 15~18세의 응답자는 서빙·주방일에 종사한 경우가 38.0%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았던 반면, 만 19~24세는 서빙·주방일(23.7%)과 매장 관리(21.0%) 종사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 25세 이상에서는 서빙·주방일보다는 생산·기능직이나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빙·주방일(18.0%), 매장관리(17.0%), 서비스업(16.5%) 종사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서빙·주방일에 종사한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4.2%, 21.9%). 이는 광역시와 그 외 지역에서 청소년·청년이 종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종이 수도권보다 다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2년 여간 지속된 2021년 11월 조사 시점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 수는 총 46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종사 직종 분포는 표 V-5와 같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서빙·주방일(19.6%)이며, 2020년 1월에도 이 직종의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당시의 종사자 비율(20.6%)보다 조금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매장관리(16.2%)로 2020년 1월의 비율(16.0%)과 유사하였

다. 2020년 1월에는 서비스직(15.5%)과 생산·기능직(15.4%)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나, 2021년 11월에는 생산·기능직의 비율(15.4%)이 서비스직(13.4%)을 앞섰다. 2021년 11월 교육 관련 직종 종사자의 비율(13.4%)은 2020년 1월(10.4%)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V-2에 두 시점의 직종 분포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V-5. 2021년 11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직종 대분류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서빙·주방	19.6	19.0	20.3	39.3	20.5	17.6	11.4	16.3	23.0	23.6
매장관리	16.2	15.6	16.8	23.0	20.5	12.0	12.1	18.0	15.6	12.4
서비스	13.4	15.6	11.2	9.8	12.6	16.0	13.6	13.9	11.9	14.6
생산·기능	15.4	23.2	7.3	11.5	8.6	15.2	25.0	14.7	15.6	16.9
사무·회계	12.4	8.9	16.0	8.2	13.9	14.4	10.6	13.1	14.1	7.9
교육	13.4	8.9	18.1	4.9	12.6	17.6	14.4	13.1	11.9	16.9
기타	4.7	4.2	5.2	1.6	5.3	2.4	7.6	4.5	5.2	4.5
IT·디자인	2.1	2.1	2.2	1.6	3.3	2.4	0.8	3.3	1.5	0.0
상담·영업	2.8	2.5	3.0	0.0	2.7	2.4	4.6	3.3	1.5	3.4

* 주: 1) 2021년 1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총 469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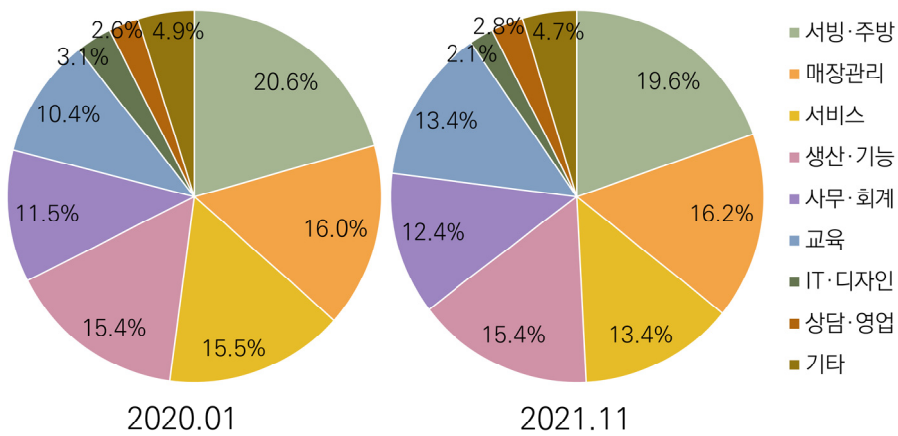


그림 V-2.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 직종

남성은 생산·기능직이 2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서빙·주방일이 19.0%로 2020년 1월의 직종 비율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서빙·주방일 종사 비율은 20.3%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2순위가 2020년 1월과 달리 매장관리(16.8%)가 아니라 교육(18.1%)으로 변화하였다.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은 2020년 1월의 15.8%에서 11.2%로 4.6%p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5~18세의 응답자는 2020년 1월과 마찬가지로 서빙·주방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다. 만 19~24세는 서빙·주방일(20.5%)과 매장관리(20.5%) 종사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두 직종의 비율이 유사하던 2020년 1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 25~29세 집단은 2020년 1월에는 서비스와 생산·기능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 11월에는 서빙·주방(17.6%)과 교육(17.6%) 관련 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30~34세 집단에서는 2020년 1월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생산·기능직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을 뿐(25.0%) 특별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거주자의 서비스업 종사 비율(13.9%)은 2020년 1월(16.5%)보다 감소

한 반면, 교육 관련 종사 비율(13.1%)은 2020년 1월(9.8%)보다 증가하였다. 광역 시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교육 종사자 비율이 12.5%에서 16.9%로 증가하였다.

(1) 이직 현황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에 일하고 있는 직장이 다른 응답자는 총 200명이었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111명은 이직 후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200명 중 82명은 상용직으로 취업 중이었는데 그 중 48명(58.5%)은 정규직, 나머지 34명(41.5%)은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였다. 정규직 취업자 중 29.2%(14명)와 비정규직 취업자 중 26.5%(9명)는 현재 경영·회계·사무직에 종사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직종이 상용직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V-6. 2020년 1월 이후 이직 여부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비이직자	76.3	84.0	68.5	75.4	74.8	76.8	78.0	76.3	77.0	75.3
이직자	23.7	16.0	31.5	24.6	25.2	23.2	22.0	23.7	23.0	24.7

* 주: 1) 2021년 1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총 469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위의 표 V-6은 2021년 11월 조사 시점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469명에 대하여 2020년 1월 이후 이직 여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중 23.7%에 해당하는 111명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한 경우였으며, 이직 비율은 여성(31.5%)이 남성(16.0%)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의 이직률(22.0%)이 가장 낮았고, 만 19~24세의 이직률(25.2%)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 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도 이직률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7. 이직자·비이직자 현재 직종 대분류

단위: %

	전체 ¹⁾	이직 여부 ²⁾	
		비이직자	이직자
서빙·주방	19.6	21.5	13.5
매장관리	16.2	15.1	19.8
서비스	13.4	14.8	9.0
생산·기능	15.4	15.4	15.3
사무·회계	12.4	10.1	19.8
교육	13.4	13.1	14.4
기타	4.7	5.0	3.6
IT·디자인	2.1	2.2	1.8
상담·영업	2.8	2.8	2.7
계	100.0	100.0	100.0

* 주: 1) 2021년 1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총 469명, 2) 비이직자 358명, 이직자 111명

2021년 11월 조사 시점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469명 중 이직자와 비(非)이직자의 종사 직종을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V-7). 분석 결과 드러난 종사 직종 비율의 차이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직업시장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인지 이직자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비이직자는 서빙·주방 종사 비율(21.5%)이 가장 높고 생산·기능직(15.4%), 매장관리(15.1%) 비율이 그 뒤를 잇는 반면, 2020년 1월 이후 이직자는

2021년 11월 현재 매장관리(19.8%)와 사무·회계(19.8%) 종사 비율이 가장 높고 서빙·주방일에 종사하는 비율(13.5%)은 비이직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 비이직자 현황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2021년 11월 조사시점까지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4.8%인 358명이었다. 비이직자 358명 중 37.7%가 2020년 1월 당시에 재·휴학 중이었고, 2021년 11월 조사 시점에는 36.3%가 재·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조사 시점까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이었다.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의 동일 직장 내 임금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표 V-8에 제시하였다. 비이직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5%는 2020년 1월과 비교하여 임금의 변화가 없었고 37.7%는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14.8%는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V-8. 비이직자 임금 변화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변화없음	47.5	46.7	48.4	58.7	40.7	46.9	50.5	48.1	46.2	47.8
임금증가	37.7	42.7	31.4	26.1	45.1	40.6	32.0	38.0	35.6	40.3
임금감소	14.8	10.6	20.1	15.2	14.2	12.5	17.5	13.9	18.3	11.9

* 주: 1)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동일 직장 근무자 358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성별로는 남성(46.7%)과 여성(48.7%) 모두 임금에 변화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임금이 증가한 남성 비이직자의 비율은 42.7%인데 비해 여성 비이직자의 31.4%만이 임금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여성 비이직자는 20.1%, 남성 비이직자는 10.6%가 임금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직자의 임금 변화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만 15~18세는 임금의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58.7%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만 30~34세도 임금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50.5%)이었는데,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17.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만 25~29세는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12.5%)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만 19~24세는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5.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임금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40.7%)보다도 높은 유일한 연령대였다.

지역별로는 임금에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모두 가장 높았고 46~4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광역시 거주자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비율(18.3%)이 타 지역 거주자 중 임금 감소를 보고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이직자 중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40.3%로, 수도권이나 광역시 거주자 중 임금 증가를 보고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이직자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수는 53명으로 총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이들 중 67.9%가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임금 감소가 코로나-19 유형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례 수가 적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임금 감소 이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표 V-9. 비이직자 직종별 임금 변화

단위: %

	변화 없음 ¹⁾	임금 증가 ²⁾	임금 감소 ³⁾	계
서빙·주방	48.1	37.7	14.3	100.0
매장관리	48.2	44.4	7.4	100.0
서비스	50.9	35.9	13.2	100.0
생산·기능	43.6	43.6	12.7	100.0
사무·회계	44.4	47.2	8.3	100.0
교육	42.6	29.8	27.7	100.0
기타	72.2	22.2	5.6	100.0
IT·디자인	12.5	37.5	50.0	100.0
상담·영업	60.0	10.0	30.0	100.0

* 주: 1) 170명. 2) 135명. 3) 53명

비이직자의 임금 변화를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V-9와 같다. 서빙·주방, 매장관리, 서비스, 생산·기능 이외의 직종 종사자는 직종별로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가장 많은 이 네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빙·주방(48.1%), 매장관리(48.2%), 서비스(50.9%) 종사자는 임금의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임금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43.6%)과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응답(43.6%)이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매장관리직 종사자 중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44.4%로 다른 세 개 직종 종사자 중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비율보다 높고,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비율은 7.4%로 가장 낮다. 서빙·주방일 종사자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4.3%로 네 개 직종 중 가장 높았다.

비이직자들은 2021년 11월에 2020년 1월과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중 이직 시도를 한 비율은 60.9%에 달한다(표 V-10). 여성 비이직자의 이직 시도 비율(64.2%)이 남성 비이직자의 이직 시도율(58.3%)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이직 시도 비율(74.0%)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았다. 만 15~18세의 청소년

년은 이직을 시도한 비율이 4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수도권 (60.4%)이나 광역시(57.7%)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이직 시도 비율(67.2%)이 더 높았다.

표 V-10. 비이직자 이직 시도 경험

단위: %

	계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이직 시도함	60.9	58.3	64.2	45.7	59.3	74.0	57.3	60.4	57.7	67.2
이직 시도 안함	39.1	41.7	35.8	54.3	40.7	26.0	42.7	39.6	42.3	32.8

* 주: 1)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동일 직장 근무자 358명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이직하고자 한 이유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표 V-1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직을 시도한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47.2%)이었다. 높은 노동강도(25.7%)가 그 뒤를 이었고,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의 특성인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정성(20.2%)을 이직시도의 이유로 지목한 비율 또한 높았다. 계약상 근무시간이나 근무일 외에 더 일해야 하는 것(18.3%)이나 일이 맞지 않아서(16.1%) 이직하고자 했다는 응답 비율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이직을 시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응답자 중 일부에 그쳤다.

표 V-11. 비이직자 이직 시도 이유(복수 응답)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저임금	47.2	45.7	49.0	57.1	43.3	45.1	50.8	49.6	45.0	44.4
노동강도	25.7	26.7	24.5	23.8	26.9	26.8	23.7	31.0	16.7	24.4
불안정성	20.2	19.8	20.6	4.8	16.4	19.7	30.5	18.6	20.0	24.4
계약 외 추가근무	18.3	19.8	16.7	19.0	29.9	11.3	13.6	18.6	18.3	17.8
일이 맞지 않아서	16.1	15.5	16.7	14.3	14.9	21.1	11.9	20.4	13.3	8.9
고용주가 함부로 대해서	9.6	11.2	7.8	4.8	9.0	8.5	13.6	9.7	5.0	15.6
고객이 함부로 대해서	8.7	8.6	8.8	0.0	9.0	11.3	8.5	9.7	8.3	6.7
직장동료 불화	7.3	8.6	5.9	19.0	6.0	4.2	8.5	6.2	5.0	13.3
임금체불	6.9	8.6	4.9	0.0	6.0	11.3	5.1	8.0	6.7	4.4
코로나19 감염 우려	6.0	6.9	4.9	4.8	6.0	4.2	8.5	8.0	5.0	2.2
기타	6.0	6.9	4.9	0.0	7.5	7.0	5.1	6.2	6.7	4.4

* 주: 1) 비이직자 358명 중 이직을 시도한 218명의 응답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성별에 따른 이직 시도 이유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 는 차이가 드러났다. 만 15~18세의 청소년들은 저임금을 이직 시도의 이유로 지목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현재 직업의 불안정성을 지목한 비율은 4.8%에 불과하여 청년층의 응답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만 19세 이상의 청년층 에서도 저임금이 이직을 시도한 이유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외의 이유를 지목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만 19~24세는 계약 외 추가 근무(29.9%)와 노동강도(26.9%)를 저임금 다음으로 많이 지목하였으나, 만 25~29세는 노동강도(26.8%)와 일이 맞지 않아서(21.1%)를, 만 30~34세는 불안 정성(30.5%)와 노동강도(23.7%)를 지목한 비율이 저임금 다음으로 높았다.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모두에서 이직 시도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저임금이지만, 그 뒤를 잇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을 드러냈다. 수도권 거주 비이직자는 노동강도(31.0%)와 일이 맞지 않아서(20.4%)를 지목한 비율 이 높았지만, 광역시 거주자는 불안정성(20.0%)과 계약 외 시간의 추가 근무 (18.3%)를 저임금 다음으로 많이 꼽았으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노동강도(24.4%) 와 불안정성(24.4%)을 많이 지목하였다.

저임금을 이직 시도의 이유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은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의 임금 비교와도 연계된다. 2021년 11월의 임금이 2020년 1월의 임금보다 높다고 한 비이직자의 56.3%만이 2020년 1월 이후 이직을 시도한 경험 이 있는 반면, 임금이 동일한 이들의 63.5%, 임금이 감소한 이들의 64.2%가 이직 을 시도하였다.

(3) 이직자/퇴사자 현황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 응답자는 442명으로 2021년 11월에도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응답자(358명)보다 더 많았다. 표 V-12는

이들이 그만두기 전에 다니던 직장의 직종 분포를 보여준다.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IT·디자인으로 직종 종사자의 68.0%가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교육(43.4%) 직종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절반 이상이 종사하였던 서빙·주방, 매장관리, 서비스 직종은 세 개 직종 모두 2020년 1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모든 직종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1월 이후 대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표 V-12. 직종별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비율

단위: %

	2020년 1월 종사자 수(명)	그만둔 인원(명)	비율(%) ¹⁾
서빙·주방	165	88	53.3
매장관리	128	74	57.8
서비스	124	71	57.3
생산·기능	123	68	55.3
사무·회계	92	56	60.9
교육	83	36	43.4
기타	39	21	53.8
IT·디자인	25	17	68.0
상담·영업	21	11	52.4
전체	800	442	55.3

* 주: 1) 비율 = 그만둔 인원/2020년 1월 종사자 수*100

직종별로 2020년 1월의 종사자 수와 2021년 11월 종사자 수의 증감률을 비교하여 표 V-1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2021년 1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의 58.6%인 469명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이나 모든 직종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종별 종사자 수 감소율은 앞서 살펴본 직종별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V-13. 2020년 1월-2021년 11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직종 종사자 수 비교

	2020년 1월 종사자 수(명)	2021년 11월 종사자 수(명)	종사자 수 증감률(%) ¹⁾
서빙·주방	165	92	△44.2%
매장관리	128	76	△40.6%
서비스	124	63	△49.2%
생산·기능	123	72	△41.5%
사무·회계	92	58	△37.0%
교육	83	63	△24.1%
기타	39	22	△43.6%
IT·디자인	25	10	△60.0%
상담·영업	21	13	△38.1%
전체	800	469	△41.4%

* 주: 1) 증감률 = (2021년 11월 종사자 수-2020년 1월 종사자 수)/2020년 1월 종사자 수

직종별로 종사자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IT·디자인 직종은 종사자 수 감소율도 가장 컸다. 전체 사례수가 많지는 않으나 2020년 1월에 IT·디자인 직종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응답자 중 2021년 11월에도 IT·디자인 직종에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례는 1명에 불과했다. 또한, 2020년 1월에 일하던 IT·디자인 직종의 직장을 그만둔 응답자의 64.7%는 2021년 11월 조사시점에 일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직장을 그만둔 비율, 직종 종사자 수의 변화, 이직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T·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T·디자인 직종 다음으로 종사자 수의 감소가 큰 직종은 2020년 1월에 종사자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던 서비스 직종이며,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모두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빙·주방 직종 또한 종사자 수가 44.2% 감소하였다.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2020년 1월에는 조사응답자 중 영화·공연·전시와 관련된 서비스직 종사자는 20명이었으나 2021년 11월에는 해당 직종 종사자 수가 9명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서빙·주방일의 대표적 세부직종인 음식점·레스토랑 종사자의 수도 2020년 1월에는 68명이었으나 2021년 11월에는 46명으로 그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청년들이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흔히 일하는 직종들은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직종에 해당한다. 서빙·주방일이나 서비스직이 종사하는 업소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인원 수 제한 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문이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이후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에 이르면서 서빙·주방이나 서비스, 매장관리 등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종사자 수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교육 분야로, 여타 직종의 감소율이 40% 내외에 달하는 데 비해 교육 분야의 종사자 수의 감소율은 24.1%에 그쳤다. 교육 분야 세부직종 중 가장 다수가 포함된 기타 강사·교육 종사자의 수는 2020년 1월의 31명에서 2020년 11월에는 2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는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비율(43.4%)도 가장 낮게 집계된 직종에 해당한다.

사무·회계 직종의 경우는 2020년 1월 종사자 중 60.9%가 직장을 그만두어 IT·디자인에 이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직종이지만,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의 종사자 수는 37.0%만이 감소하였다. 이는 사무·회계 직종 내에서 이직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례 수는 18명으로 적지만 실제로 2020년 1월 사무·회계 직종 종사자 중 이직한 이들의 72.2%는 2021년 11월에도

사무·회계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사무·회계 다음으로 높은 매장관리의 경우 이직자의 53.3%, 서비스직의 경우 이직자의 35.3%만이 2021년 11월에 동일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직자·퇴사자들에게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모두 골라 달라고 요청하여 응답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표 V-14와 같다.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이직/퇴사 이유는 낮은 임금(18.8%)과 노동강도(18.8%)였으며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14.3%)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그만두었다는 비율은 7.2%, 해고되었다는 비율은 4.5%였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자(32명) 중 78.1%는 사업장이 문을 닫은 이유가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고되어 이직/퇴사했다는 응답자(20명) 중 65.0%는 해고의 이유가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던 청소년·청년의 일부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실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직/퇴사자의 8.8%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노동강도(20.4%)와 일이 맞지 않아서(19.4%)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저임금(23.2%)과 노동강도(17.4%)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저임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4%로 여성보다 9.8%p 낮았다. 앞서 표 V-11에서 살펴본 비이직자의 이직 시도 이유에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 시도 응답 비율의 성별 차이가 3.3%p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2020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직장을 그만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V-14.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이유(복수 응답)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저임금	18.8	13.4	23.2	7.4	16.0	20.2	28.9	17.4	23.5	15.1
노동강도	18.8	20.4	17.4	31.5	21.9	15.4	9.3	18.3	19.1	19.4
불안정성	5.2	4.5	5.8	1.9	5.9	7.7	3.1	5.2	7.4	2.2
계약 외 추가근무	7.0	6.0	7.9	3.7	9.6	5.8	5.2	8.0	5.1	7.5
일이 맞지 않아서	14.3	19.4	10.0	11.1	12.8	18.3	14.4	15.0	12.5	15.1
고용주가 함부로 대해서	5.0	3.0	6.6	7.4	7.0	1.0	4.1	4.2	5.1	6.5
고객이 함부로 대해서	3.2	2.5	3.7	3.7	3.2	1.0	5.2	2.3	4.4	3.2
직장동료 불화	5.2	6.0	4.6	5.6	3.7	4.8	8.2	3.3	8.1	5.4
임금 체불	1.8	2.5	1.2	5.6	0.5	0.0	4.1	1.9	2.2	1.1
코로나19 감염 우려	8.8	10.0	7.9	7.4	8.0	6.7	13.4	10.3	8.8	5.4
폐업	7.2	6.5	7.9	1.9	3.7	6.7	17.5	8.0	8.8	3.2
해고	4.5	4.5	4.6	0.0	3.7	5.8	7.2	5.6	4.4	2.2
기타	35.5	32.3	38.2	33.3	38.0	37.5	29.9	34.3	31.6	44.1

* 주: 1)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442명의 응답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앞서 표 V-11에서 살펴본 비이직자의 이직 시도 이유에서 2020년 1월과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청년이 이직을 시도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저임금(43.3%~57.1%)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표 V-14에 제시된 것처럼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만 19~24세의 청년은 노동강도(21.9%)와 저임금(16.0%)을, 만 25~29세는 저임금(20.2%)과 일이 맞지 않아서(18.3%)를, 만 30~34세는 저임금(28.9%)과 폐업(17.5%)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지목하였다. 반면에 만 15~18세의 청소년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노동강도(31.5%)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고, 일이 맞지 않아서(11.1%)가 그 다음이었으며, 저임금을 지목한 비율은 7.4%에 불과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동일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 15~18세 청소년들이 저임금으로 이직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일 수 있다(표 V-11 참고). 한편,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그만둔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한 비율은 만 30~34세에서 13.4%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당 응답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응답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그만두었다는 비율과 폐업으로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수도권(각각 10.3%, 8.0%)과 광역시(각각 8.8%, 8.8%)에서 그 외 지역(각각 5.4%,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코로나-19 확산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에게 미친 여파가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더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V-15는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직종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인 IT·디자인 직종에서 종사하던 응답자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돈을 너무 적게 받아서

(41.2%)였고 일이 많고 힘들어서(11.8%)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사무·회계와 매장관리에 종사하던 이들도 돈을 너무 적게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2%와 23.0%로 가장 높았다.

표 V-15. 직종별 2020년 1월 직장 그만둔 이유(복수 응답)

단위: %

	서빙· 주방	매장 관리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교육	기타	IT· 디자인	상당· 영업
저임금	14.8	23.0	19.7	10.3	23.2	13.9	9.5	41.2	45.5
노동강도	18.2	16.2	14.1	30.9	10.7	11.1	38.1	11.8	36.4
불안정성	6.8	2.7	5.6	8.8	7.1	0.0	4.8	0.0	0.0
계약 외 추가근무	10.2	5.4	1.4	8.8	7.1	8.3	9.5	5.9	9.1
일이 맞지 않아서	12.5	6.8	18.3	22.1	16.1	8.3	14.3	5.9	27.3
고용주가 함부로 대해서	12.5	4.1	2.8	0.0	7.1	0.0	0.0	0.0	18.2
고객이 함부로 대해서	6.8	4.1	1.4	2.9	0.0	0.0	4.8	0.0	9.1
직장동료 불화	9.1	5.4	0.0	2.9	10.7	2.8	0.0	0.0	18.2
임금체불	5.7	0.0	0.0	1.5	0.0	0.0	0.0	5.9	9.1
코로나19 감염 우려	11.4	9.5	12.7	7.4	1.8	8.3	9.5	5.9	9.1
폐업	10.2	8.1	11.3	5.9	1.8	5.6	4.8	5.9	0.0
해고	2.3	6.8	2.8	7.4	3.6	5.6	0.0	5.9	9.1
기타	26.1	40.5	39.4	25.0	50.0	47.2	28.6	29.4	27.3
사례 수(명)	88	74	71	68	56	36	21	17	11

서빙·주방일과 생산·기능직에 종사했던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 청소년·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선택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강도였다(각각 18.2%, 30.9%). 이 두 직종에서는 저임금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지목한 비율(각 14.8%, 10.3%)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이들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인 교육 종사자들이 지목한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저임금이었지만, 저임금을 지목한 비율이 13.9%에 그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높은 직종들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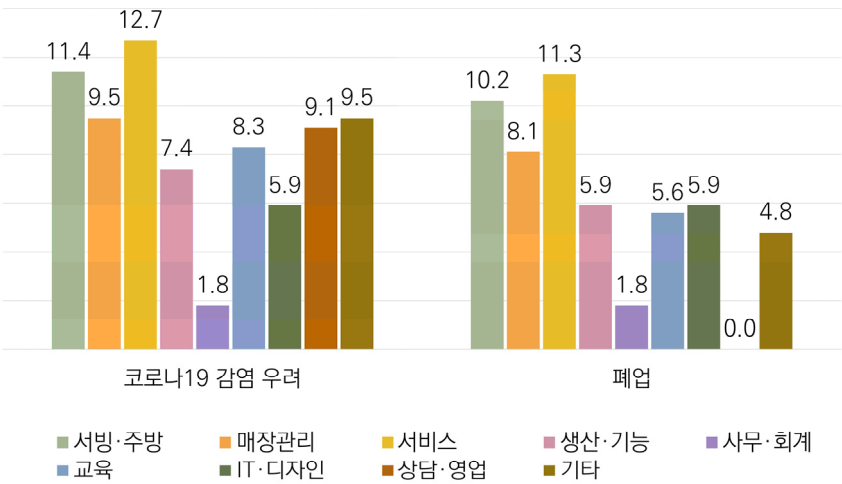


그림 V-3. 직장 그만둔 이유를 코로나19 감염 우려 또는 폐업이라고
응답한 비율(복수 응답, %)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직업의 불안정성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꼽은 비율은 모든 직종에서 10%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저임금이나 노동강도 이외에 많은 직종에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로는 일이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였는데, 매장관리, 교육, IT·디자인을 제외한 직종에서 이를 이유로 지목한 비율은 12.5~27.3%에 달했다. 고용주가 함부로 대해서가 이유라는 비율이 10%를 넘는 직종은 서빙·주방일(12.5%)과 상담·영업(18.2%)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목한 비율이 10%가 넘는 직종은 서빙·주방일(11.4%)과 서비스직(12.7%)이었으며, 서빙·

주방일(10.2%)과 서비스직(11.3%)에서는 폐업을 이유로 지목한 비율도 10%가 넘었다(그림 V-3). 계약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 외의 추가 근무는 서빙·주방일(10.2%)에 종사했던 이들만 10%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 해고나 임금 체불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라고 지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표 V-16. 구직 시도 시 경험한 어려움(복수 응답)

단위: %

	전체 ¹⁾	성별		연령대 ²⁾				지역		
		남	여	15~18세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양질의 일자리 부족	63.7	60.1	66.0	60.5	56.6	67.4	74.0	63.6	60.2	68.9
적은 채용 인원	61.7	63.0	60.8	42.1	66.4	59.8	64.9	63.0	64.1	55.4
자격 조건 미달	31.1	38.4	26.4	31.6	27.3	35.9	32.5	30.1	29.1	36.5
까다로운 자격 조건 요구	27.7	28.3	27.4	13.2	30.1	30.4	27.3	28.9	24.3	29.7
일자리 정보 부족	15.1	18.8	12.7	21.1	13.3	17.4	13.0	14.5	16.5	14.9
새 일자리 알아볼 여유 없음	11.1	13.8	9.4	13.2	14.0	6.5	10.4	8.7	8.7	20.3
기타	1.1	0.0	1.9	0.0	0.7	2.2	1.3	1.7	0.0	1.4

* 주: 1)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350명의 응답

2) 2020년 1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근무 당시 만 나이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들(442명) 중 재취업이나 이직을 시도한 응답자의 비율은 79.2%이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 취업 중인 이들은 57.1%에 불과했으며, 재취업이나 이직을 시도한 이들 중 88.9%는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표 V-16은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다른 일을 구하고자 시도하였을 때의 어려운 점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직에서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63.7%)이었으며, 이와 유사한 비율로 지목된 것이 채용 인원이 적다는 것(61.7%)이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비율은 31.1%였고, 사업장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이보다 조금 낮은 27.7%였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15.1%)는 비율과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가 없다(11.1%)는 비율도 10%를 웃돌았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 중 여성 응답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을 구직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비율이 66.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 응답자는 채용 인원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다. 한편, 남성 응답자는 본인이 자격조건이 부족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여성(26.4%)보다 12%p 높았다.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만 15~18세의 청소년은 구직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60.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채용 인원이 적어서(42.1%)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반면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21.1%)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4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6.6%)보다 적은 채용 인원(66.4%)으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유일한 연령대였다. 만 25~29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67.4%)과 적은 채용 인원(59.8%)에 이어 본인의 자격 조건 미달(35.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만 25~29세가 본인의 자격 조건 미달을 구직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비율은 타 연령대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34세 응답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목한 비율이 74.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을 시도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수도권 거주자(63.6%)나 광역시 거주자(60.2%)보다 그 외 지역 거주자(68.9%)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채용 인원이 적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은 55.4%로 수도권(63.0%)이나 광역시(64.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농어촌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가 없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20.3%)이 수도권과 광역시(각 8.7%)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중 2021년 11월 조사시점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111명이었다. 이들 중 2020년 1월에 종사했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서 2021년 11월에도 일하고 있는 비율은 47.8%이며, 52.2%는 다른 직종의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 응답자 442명 중 2021년 11월에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이직자는 200명이다. 이들 중 2020년 1월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었던 비율은 31.5%, 2021년 11월 현재 재학이나 휴학 중인 비율은 20.5%이며, 두 시점에서 모두 학생 신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0%이다. 2020년 1월 학생이었던 이들이 졸업과 함께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비율은 비이직자와 차이가 있는데, 비이직자 중 2020년 1월 학생인 비율은 37.7%, 2021년 11월에는 36.3%, 계속해서 학생인 비율은 30.5%로 이직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상용직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20.7%만이 2020년 1월에는 학생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하여, 졸업이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조사시점에 2020년 1월에 일하던 직장과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200명 중 이직 후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111명이었다. 이들 중 2020년 1월에 종사했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서 2021년 11월에도 일하고 있는 비율은 47.8%이며, 52.2%는 다른 직종의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3. 시사점: 코로나-19가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에 미친 영향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의 과반(65.1%, 표 V-4)이 2020년 1월에 서빙·주방, 매장관리, 서비스, 상담·영업, 교육 등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직종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다른 직종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이직을 시도한 이유나 2020년 1월에 일하던 곳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를 지목한 응답자는 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5%이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유일한 이유라고 한 응답자는 20명(2.5%)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이직하고자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52명의 2020년 1월 종사 직종은 서빙·주방(25.0%), 매장관리(19.2%), 서비스(19.2%), 상담·영업(3.9%), 교육(5.8%)로 이들의 73.1%가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된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한 응답자는 13명, 사업장이 폐업한 이유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라고 한 응답자는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에 해당했다. 이들이 2020년 1월에 종사하던 직종은 대인 업무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직종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던 응답자 비율이 78.9%를 차지하여 해당 직종이 코로나-19의 영

향을 더 크게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시점인 2021년 11월에도 2020년 1월과 동일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이직자 중 2020년 1월에 비해 조사시점에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53명인데, 이들의 67.9%(36명)는 임금 감소의 이유가 고용주 사정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파급효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36명 중 80.6%(29명)는 대인 업무가 주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월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시도한 응답자 중 88.9%는 이전보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느꼈는데, 이 또한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구인이 줄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모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전체 응답자 중 30.3%가 조사시점에 일하지 않고 있었고, 18.8%는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청년 집단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성과 부족한 경력 및 연소자라는 생애주기 상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18897.pdf&rs=/rsfiles/2021112/> (2021. 12. 14. 인출)

관계부처 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23912.pdf&rs=/rsfiles/2021112/> (2021. 12. 14. 인출)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a309d1aeb3644f89763731f4ee32493.pdf&rs=/rsfiles/2021112/> (2021. 12. 14. 인출)

관계부처 합동(2021. 7. 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20> (2021. 12. 18. 인출)

교육부(2014. 2. 27.).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46376> (2021. 12. 18. 인출)

교육부(2019. 11. 19.).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02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

- 20402&opType=N (2021. 12. 18. 인출)
- 교육부(2021. 11. 24. 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397>
(2021. 11. 29. 인출)
- 교육부(2021. 11. 24. 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397>
(2021. 11. 29. 인출)
- 김소희(2020. 4. 22.). 알파세대,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3411.html (2021. 12. 19. 인출)
- 김정숙(2014),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
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연구보고(수시과제) 14-R27).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남영옥, 송연주(201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7(4), 83-109.
- 박지영(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 58,
32-38.
- 박지현, 조재희(2020).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청
소년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4), 86-1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12. 20.). 청소년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1. 12. 20. 인출)
- 여성가족부(2014. 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26819.hwp&rs=/rsfil>

- es/2021112/ (2021. 12. 18. 인출)
- 여성가족부(2018. 3. 6.).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 대전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b696bfc942e24b08972dbdacb3fb9a9b.hwp&rs=/rsfiles/2021112/> (2021. 11. 29. 인출)
- 임혜원(2021. 8. 26.). 2022 개정교육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반영해야. 뉴스로드.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3>
(2021. 11. 15. 인출)
-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201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4. 4.).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87> (2021. 12. 18.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유저가이드. <https://www.nypi.re.kr/archive/mps> (2021. 11. 15.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립목적.
https://www.nypi.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30002&menu_nix=2b0XeZK1 (2021. 12. 9. 인출)
- 행정안전부(2021. 3. 23.). 대한민국 관보 제19964호 법률 제17974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https://gwanbo.go.kr> (2021. 12. 18. 인출).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https://doi.org/10.1108/10748120110424816>

○ — 부 록

- 1.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지
- 2.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
조사 온라인 설문지

부록

1.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지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새롭게 실시되는 청년정책에 대하여 정책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적인 수요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다음으로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 정책동향분석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앞으로 실시될 청년정책에 대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적인 수요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조사결과는 청년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사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됩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예정인 청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한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도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년정책에 정책당사자이자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가 제공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에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 참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성별, 학력, 취업정보 및 소득, 주거정보 등으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며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이지연
전화번호 : 044-415-2111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다음으로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문1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 ☐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문1=2인 경우 확인창 노출 후 응답 맞으면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 확인창 문구: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책동향분석」과제의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참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성별, 학력, 취업정보 및 소득, 주거정보

선문2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선문2=2인 경우 확인창 노출 후 응답 맞으면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 확인창 문구: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

선문3 귀하의 출생년월을 입력해 주세요.

년	월

/ 드롭다운으로 구성 /

/ 1986년 12월 ~ 2002년 10월 외의 출생자 설문종료(2021년 11월 기준 만 19~34세가 아닌 자) /

/ 만19 ~ 24세 : 2002년 10월 ~ 1996년 12월 /

/ 만25 ~ 29세 : 1996년 11월 ~ 1991년 12월 /

/ 만30 ~ 34세 : 1991년 11월 ~ 1986년 12월 /

신문4 ▶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 여성
- ☐ 남성

신문5 ▶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수도권 쿼터: 서울, 인천, 경기 /

/ 광역시 쿼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그 외 쿼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기업들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에 연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8~23세 고졸 청년 2만 명을 포함하여) 총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문1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1-1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1-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이란?

청년 구직자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 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2)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3) 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문2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2-1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이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2-2 ▶ 만약 본인이 구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이란?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1) 예비 창업자 400명에게 각 1천만 원씩, 업력 1년 미만 초기창업자 100명에게 각 2천만 원씩 사업화 자금, 2) 선배 창업가 멘토링, 3) 세무·회계 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문3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3-1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이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3-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을 신청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청년(기준중위 100% 이하의 연소득 600~2,400만 원 이하 19~34세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15~39세)은 연소득 기준이 면제되며 본인 납입액의 3배(최대 30만 원)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4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4-1 ▶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4-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 희망적금이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총 급여 3,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연 납입한도 600만 원) 시중금리에 더하여 1년에 2%, 2년에 4%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5 ▶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5-1 ▶ “청년 희망적금”이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5-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 희망적금”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이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소득 기준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입니다.

문6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6-1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6-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주 1회, 월 4회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간 지원합니다. 전국의 자립준비 청년 등 1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7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7-1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가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7-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청년의제 공론화장이란?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이 직접 해법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선정된 의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을 1년에 두 번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문8 ▶ “청년의제 공론화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8-1 ▶ “청년의제 공론화장”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8-2 ▶ “청년의제 공론화장”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공공자가주택이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이 추진됩니다. 3기 신도시 17.3만호 등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대책 사업지구 83.6만호의 10~2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익공유형: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2. 지분적립형: 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0~30년 중 선택하여 나누어 부담
3. 토지임대부: 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고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문9 ▶ “공공자가주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 아니오

문9-1 ▶ “공공자가주택”이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약간 도움이 된다
- ☐ 매우 도움이 된다

문9-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공공자가주택”을 신청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카테고리 노출 범위 : 해당 문항 및 소문항까지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란?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40년 동안 적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월세 내듯이 매월 갚아나가도록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이용 시 시중 월세와 비슷한 부담으로 내 집 장만이 가능해집니다.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 한도	3억 원 → 3.6억 원 (7.1일부터)	5억 원										
LTV·DTI	LTV 70% (주택 가격의 70%) DTI 60% (개인 연소득의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21.7월 기준)	<table><tr><td>만기</td><td>10년</td><td>20년</td><td>30년</td><td>40년</td></tr><tr><td>인터넷 금리</td><td>2.60</td><td>2.80</td><td>2.85</td><td>2.90</td></tr></table>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인터넷 금리	2.60	2.80	2.85	2.90	3.34~3.92%(은행별 상이)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인터넷 금리	2.60	2.80	2.85	2.90								

문10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예
☐ 아니오

문10-1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문10-2 ▶ 만약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문11 ▶ 다음 중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 희망적금
-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 ☐ 청년의제 공문화장
- ☐ 공공자가주택
-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문11-1 ▶ 선택하신 정책 3가지에 대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주세요.

- 1 순위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2 순위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 3 순위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 문11에서 선택한 보기 3개만 보여주기 /

문12 ▶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신가요?

- ☐ 무학
- ☐ 초등(국민)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전문대학(2·3년제)
- ☐ 대학교(4년제)
- ☐ 대학원(석사과정)
- ☐ 대학원(박사과정)

/ 문12=1 응답 시 문13으로 이동 /

문12-1 ▶ 귀하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 ☐ 졸업했다
- ☐ 중퇴했다
- ☐ 2021년 2학기 현재 재학 중이다(졸업 유예 포함)
- ☐ 2021년 2학기 현재 휴학 중이다

문13 ▶ 귀하는 지난 한 달(30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 ☐ 일하였음
- ☐ 학교에 다녔음
- ☐ 일시휴직
- ☐ 가사 혹은 육아
- ☐ 구직활동
- ☐ 취업준비(고시, 직업훈련 포함)
- ☐ 진학준비(재수, 편입준비, 대학원 진학 준비 등)
- ☐ 군입대 대기, 군복무
- ☐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음
- ☐ 쉬었음
- ☐ 기타

/ 문12=5-8 and 문12-1=3 이면서 문13=2가 아닐 경우, 확인1로 이동, 그 외는 문14로 이동 /

확인1 ▶ 앞선 12-1 문항에서 2021년 2학기 현재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응답이 맞으십니까?

- ☐ 네, 재학 중이 맞습니다
- ☐ 아니오, 다시 응답하고 싶습니다

/ 확인1=1 응답 시 문14로 이동 /

/ 확인1=2 응답 시 문12-1로 이동 /

/ 문12=1~8 and 문12-1=30이 아니면서 문13=2인 경우, 확인2로 이동, 그 외는 문14로 이동 /

확인2 ▶ 앞선 12-1 문항에서 2021년 2학기 현재 재학 중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응답이 맞으십니까?

- ☐ 네, 재학 중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 ☐ 아니오, 다시 응답하고 싶습니다

/ 확인2=1 응답 시 문14로 이동 /

/ 확인2=2 응답 시 문12-1로 이동 /

문14 ▶ 귀하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규 취업뿐만 아니라 사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예'로 응답해주세요.

- ☐ 예
- ☐ 아니오

/ 문14=2 응답 시 문15로 이동 /

문14-1 ▶ 현재 귀하의 **취업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상용직
- ☐ 임시직, 계약직
- ☐ 일용직
- ☐ 고용원(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 ☐ 1인 자영업자(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 ☐ 무급가족종사자

/ 문14-1=1 응답이 아닌 경우 문14-3으로 이동 /

문14-2 ▶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정규직
- ☐ 비정규직

문14-3 ▶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인한 **근로소득**은 대략 **월 평균** 얼마인가요? 세금공제 이전의 액수로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주시고, 연봉의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평균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월 평균 만원

/ 금액 기입 시 한글로 금액 제시 /

/ 응답 가능 범위 1~9999 /

/ 20만원 미만 또는 2,000만원 이상 응답할 경우 확인창 노출 /

/ 확인창: 한 달 평균 소득을 입력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이 (응답 값) 만원이 맞습니까?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

/ 확인 시 다음 문항으로, 취소 시 현재 문항 스테이 /

문15 ▶ 귀하가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 ☐ 단독주택
- ☐ 아파트
- ☐ 연립주택/빌라
- ☐ 다세대·다가구 주택/원룸
- ☐ 오피스텔
- ☐ 고시원
- ☐ 기숙사/사택
- ☐ 기타

문16 ▶ 귀하가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 ☐ 자가(부모님 소유 포함)
- ☐ 전세(월세 없음)
- ☐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임대아파트 포함)
- ☐ 보증금 없는 월세
- ☐ 무상
- ☐ 잘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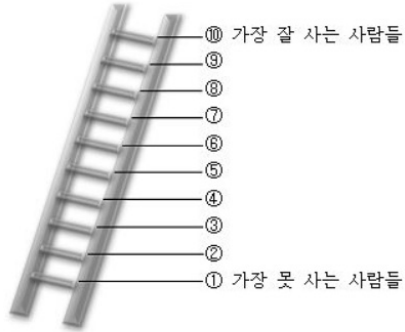
문17 귀하에게 현재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 ☐ 부모님(부모님 소유/부모님이 보증금·월세 부담 등)
- ☐ 본인(본인 소유/본인이 보증금·월세 부담 등)
- ☐ 부모님과 본인 공동(공동으로 주거/주거비 부담 등)
- ☐ 기타(제3자가 부담 등)

문18 귀하가 현재 주 5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 ☐ 혼자
- ☐ 어머니
- ☐ 아버지
- ☐ 형제자매
- ☐ 형제자매의 배우자
- ☐ 할머니/할아버지
- ☐ 기타 친척
- ☐ 친구/선후배
- ☐ 연인
- ☐ 기타

/ 1번 보기 응답 시 중복 선택 불가 /



문19 ▶ 아래의 사다리 그림에서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위쪽에, 못 사는 사람들은 아래 쪽에 위치합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택

▼

/ 드롭다운 구성, 10부터 1까지 /

문20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2.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온라인 설문지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변화한 청소년·청년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다음으로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 정책동향분석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변화한 청소년·청년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전에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근로환경이 지난 2년간 어떠하였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조사결과를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사는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연령이 만 15세 ~만 34세였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귀하의 근로이력과 근로환경에 대한 의견 등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한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도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가 제공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에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 참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취업상태 등으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며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이 지 연, 전화번호 : 044-415-2111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다음으로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문1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 ☐ 연구 참여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선문1=2인 경우 확인창 노출 후 응답 맞으면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 확인창 문구: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책동향분석」과제의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 조사> 참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취업상태

선문2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선문2=2인 경우 확인창 노출 후 응답 맞으면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 확인창 문구: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

선문3 ▶ 귀하의 **성별**을 입력해 주세요.

- ☐ 남성
- ☐ 여성

선문4

귀하의 **출생년월**을 입력해 주세요.

년	월
▼	▼

/ 드롭다운으로 구성 /

/ 만15~18세 쿼터: 2001년 1월 ~ 2004년 12월 /

/ 만19~24세 쿼터: 1995년 1월 ~ 2000년 12월 /

/ 만25~29세 쿼터: 1990년 1월 ~ 1994년 12월 /

/ 만30~34세 쿼터: 1985년 2월 ~ 1989년 12월 /

/ 1985년 2월 ~ 2004년 12월 외의 출생자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선문5

귀하는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까?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 예시]

-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
- 일당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
- 건수 당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예. 라이더)
- 월급제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만 일하며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는 일

☐ 예

☐ 아니오

/ 선문5=2인 경우 확인창 노출 후 응답 맞으면 설문종료(종료 사유 설명화면 제시) /

선문6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수도권 키퍼: 서울, 인천, 경기 /

/ 광역시 키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그 외 키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문1 ▶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했던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만약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한 곳이 2곳 이상이면 1월에 일한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분류 선택 방법 안내]

대분류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소분류가 나타납니다. 소분류에서 맞는 항목이 없다면 다시 다른 대분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소분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배달 일을 했던 경우: 대분류 “서비스” 선택 ⇒ 소분류에 “배달”이 없음 ⇒ 대분류 “생산·기능”으로 다시 선택 ⇒ 소분류 “배달” 선택

대분류	소분류
▼	▼

/ 드롭다운으로 구성 /
 / 대분류 응답에 따라 소분류 보기 매칭하여 노출 /
 / 대분류별 소분류 리스트는 다음 장의 표 참조 /

문2 ▶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했던 직장(매장관리·편의점)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문2=2 응답 시 문8로 이동 /

1. 매장관리	2. 서방주방	3. 서비스
(10) 편의점 (11)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12)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13)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4) 의류·잡화/화장품뷰티 (15) 사무·문구용품/가구·소품매장 (16) 가전·휴대폰 (17) 청과·축산·수산물·농산물매장 (18) 찜질방·사우나 (19) 독서실·고시원·스터디룸 (20) 도서·DVD 대여점 (21) 기타매장	(20) 음식점/레스토랑 (21) 패밀리레스토랑 (22) 뷔페·연회장 (23) 커피전문점/카페 (24) 패스트푸드/치킨·피자전문점 (25) 베이커리/아이스크림/디저트 (26) 일반주점·호프 (27) 푸드코트/급식 (28) 조리·주방 보조	(30) 영화·공연·전시 (31) 놀이공원·레포츠 (32) 숙박·호텔·리조트 (33) 안내데스크·매표 (34) 보안·경호·경비/주차관리 (35) 여행가이드 (36) 헤어·피부·미용관리 (37) 나레이터 모델·피팅모델 (38) 보조출연자/사진촬영 보조 (39) 기타 서비스
4.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40) 공사현장 (41) 주유·세차 (42) 청소·미화 (43) 배달 (44) 택시·버스/대리운전/일반운전 (45) 화물·중장비·특수차/운반·이사 (46) 퀵서비스/택배 (47) 제조·가공/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0) 사무보조 (51) 자료·입력·문서작성 (52) 경리·회계·총무 (53) 비서 (54) 번역·통역 (55) 편집·교정·교열 (56) 복사·출력·제본 (57) 실험·연구보조 (58) 공공기관·공기업 (59) 기타사무	(60) 사이트·운영·관리 (61) 쇼핑몰·오픈마켓 (62) 프로그래머 (63) 컴퓨터 A/S (64) 웹·모바일 디자인 (65) 그래픽·일러스트 (66) 편집·제품·산업디자인 (67) CAD·CAM·인테리어 (68) 기타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교육	9. 기타
(70) 고객상담/콜센터 (71) 전화주문·접수 (72) 텔레마케팅 (73) 설문조사·리서치 (74) 영업·마케팅 (75) 판촉/전단지·배포 (76) 기타 상담·영업	(80) 입사·보습·학원 (81) 외국어·어학원 (82) 방문·학습지 (83) 개인지도·과외 (84) 컴퓨터·IT (85) 자격증·기술 (86) 예체능·레포츠 (87) 유아·유치원 (88) 방과후학교 (89) 기타 강사·교육	(90) 생동성·임상시험 (91) 간병/병동·외래보조 (92) 유흥업소 (93) 유흥업소/성인오락실 고객행위 (94)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문3 ▶ 지금 직장에서 2020년 1월에 받았던 돈과 지금 받는 돈을 비교할 때, 변화가 있습니까?

- ☐ 아니오(변하지 않았다)
- ☐ 예, 지금 돈을 더 많이 받는다
- ☐ 예, 지금 돈을 더 적게 받는다

/ 문3=1 또는 2 응답 시 문4로 이동 /

문3-1 ▶ 돈을 더 적게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내 사경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날)이 줄어서
- ☐ 사장(고용주) 사경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날)이 줄어서
- ☐ 기타

문4 ▶ 2020년 1월 이후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문4=2 응답 시 문6으로 이동 /

문5 ▶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언제 잘릴지 몰라서
- ☐ 돈을 너무 적게 받아서
- ☐ 일이 많고 힘들어서
- ☐ 고객(손님)이 함부로 대해서
- ☐ 돈을 제 때 받지 못해서
- ☐ 일하기로 한 요일/시간 외에도 더 일해야 해서
- ☐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라서
- ☐ 같이 일하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서
- ☐ 사장(고용주)이 함부로 대해서
- ☐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 ☐ 기타

/ 11. 기타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 로테이션 /

문6 ▶ 귀하는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문7 ▶ 귀하는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입니까?

- ☐ 예
- ☐ 아니오

/ 응답 후 설문완료 /

문8 ▶ 2020년 1월에 일했던 곳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사장(고용주)이 함부로 대해서
- ☐ 일이 많고 힘들어서
- ☐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 ☐ 같이 일하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서
- ☐ 해고당해서
- ☐ 돈을 제 때 받지 못해서
- ☐ 고객(손님)이 함부로 대해서
- ☐ 언제 잘릴지 몰라서
- ☐ 사업장(회사)가 문을 닫아서
- ☐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라서
- ☐ 돈을 너무 적게 받아서
- ☐ 일하기로 한 요일/시간 외에도 더 일해야 해서
- ☐ 기타

/ 13. 기타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 로테이션 /

/ 11(해고당해서), 12(사업장(회사)가 문을 닫아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응답 후 문9로 이동 /

문8-1 ▶ 해고의 이유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응답 후 문9로 이동 /

문8-2 ▶ 사업장(회사)가 문을 닫은 이유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문9 2020년 1월 이후로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문9=2 응답 시 문14로 이동 /

문10 다른 일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느끼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문11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시도했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나의 자격 조건이 부족함
- ☐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가 없음
- ☐ 사람을 적게 뵙음
- ☐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 ☐ 사업장(회사)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움
- ☐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
- ☐ 기타

/ 7. 기타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 로테이션 /

문12 ▶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문12=2 응답 시 문14로 이동 /

문13 ▶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입니까?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 예시]

-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
- 일당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
- 건수 당 계산해서 돈을 받는 일(예. 라이더)
- 월급제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만 일하며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는 일

- ☐ 예
- ☐ 아니오

/ 문13=2 응답 시 문13-2로 이동 /

문13-1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곳이 2곳 이상이면 일한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대분류	소분류

- / 드롭다운으로 구성 /
- / 대분류 응답에 따라 소분류 보기 매칭하여 노출 /
- / 대분류별 소분류 리스트는 문1과 동일 /
- / 응답 후 문14로 이동 /

문13-2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 관리직
- ☐ 경영·회계·사무직
- ☐ 금융·보험직
- ☐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 교육직
- ☐ 법률직
- ☐ 사회복지·종교직
- ☐ 경찰·소방·교도직
- ☐ 군인
- ☐ 보건·의료직
- ☐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미용·예식 서비스직
-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 음식 서비스직
- ☐ 경호·경비직
- ☐ 돌봄 서비스직
-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영업·판매직
- ☐ 운전·운송직
- ☐ 건설·채굴직
- ☐ 설치·정비·생산직
- ☐ 농림어업직

문13-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용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자영업자: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 상용직
- ☐ 고용원(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 ☐ 1인 자영업자(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 ☐ 무급가족종사자

/ 문13-3=1 응답이 아닌 경우 문14로 이동 /

문13-4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정규직
- ☐ 비정규직

문14 귀하는 2020년 1월에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문15 귀하는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입니까?

- ☐ 예
- ☐ 아니오

/ 설문 완료 /

국문초록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본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

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를 분류 및 분석하여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활동 및 진로(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 참여 및 권리(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 보호 및 복지(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 발달과 환경(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 정책 및 정책기반(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이었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삶의 질이 더 높고 생활사용시간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업시간 뿐 아니라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 현금 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잠정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 정보를 알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 매장관리, 서비스 등 대인업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조사대상자의 약 59%는 아직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has two main goals. First, through the review of research projects that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has carried out since 2010,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stitute is performing its role faithfu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seeks improvement measures. Seco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atest trends in youth policy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rough related surveys and survey data analysis.

The present study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research projects by the institute since 2010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subjec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lso reviewed whether a variety of youth studies have been appropriately conducted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NYPI, and discussed some points that should be improved. In this series of analysis processes, information gathering,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surveys were performed. In the second half, as the latest trends in youth policy research, three topics were selected: adolescents' media use and the media ecology; youth (young adults) policy; and the working environment of youths during the COVID-19 era. NYPI panel

survey data and two sets of new trend survey data were analyzed. First,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youth development, changes in lifestyle and media usage time. Second, a poll on youth policy was conducted and the opinions of youths on the recently announced youth policy measures were analyzed. Final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how the working conditions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ho are engaged in part-time jobs, temporary jobs, or daily menial jobs are changing in the era of COVID-19.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ve major topics and 20 sub-topics were derived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research projects of the NYPI. The topics derived involve: activities and careers (activity, international exchange, career and job); participation and rights (participation, rights, civic awareness and competence); protection and welfare (protection and self-reliance, care, disability, suspension of learning; youth out of school, school violence,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verall matters concerning values and development, risk environment, media environment, migration/multiracial background, community); and policy and policy base (law/system/policy, delivery system and infrastructure, statistical production and indicator development).

Second, by analyz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adolescents has improved and their time-use pattern is

noticeably different in the recent cohorts. In particular, in the recent cohort, not only study time, but also TV watching and computer use time have decreased, and the frequency of mobile phone use for watching video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rd, results of the poll on youth policy showed that youth were well aware of 'Youth's Tomorrow Savings Account' and 'Youth's Hope Installment Savings', which are asset formation support measures in cash payment method, and evaluated them positively. However, the awareness of the policies among potential policy beneficiaries was relatively low. Therefore,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and improve the delivery system.

Fourth, as a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of adolescents and youths in the COVID-19 era, about 59% of the respondents who worked as part-timers, temporal workers, or daily laborers before COVID-19 were still working in the same positions, and about 30% were not currently working. The occupations in which they engaged the most as part-timers, temporal workers, or day laborers are interpersonal work with a relatively high risk of COVID-19 infection, such as serving food and managing offline stores.

The present study has offered an opportunity to shar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NYPI and to provide policy trends and trend analysis results related to youths to policymakers.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화·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연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규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익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집필진]

김수정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수현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자문·협력진]

김영선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

그레이스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우선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부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천연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전담교수)

[자료 정리 외]

박성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김을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박지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45-9 93330

연구보고 21-R26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45-9